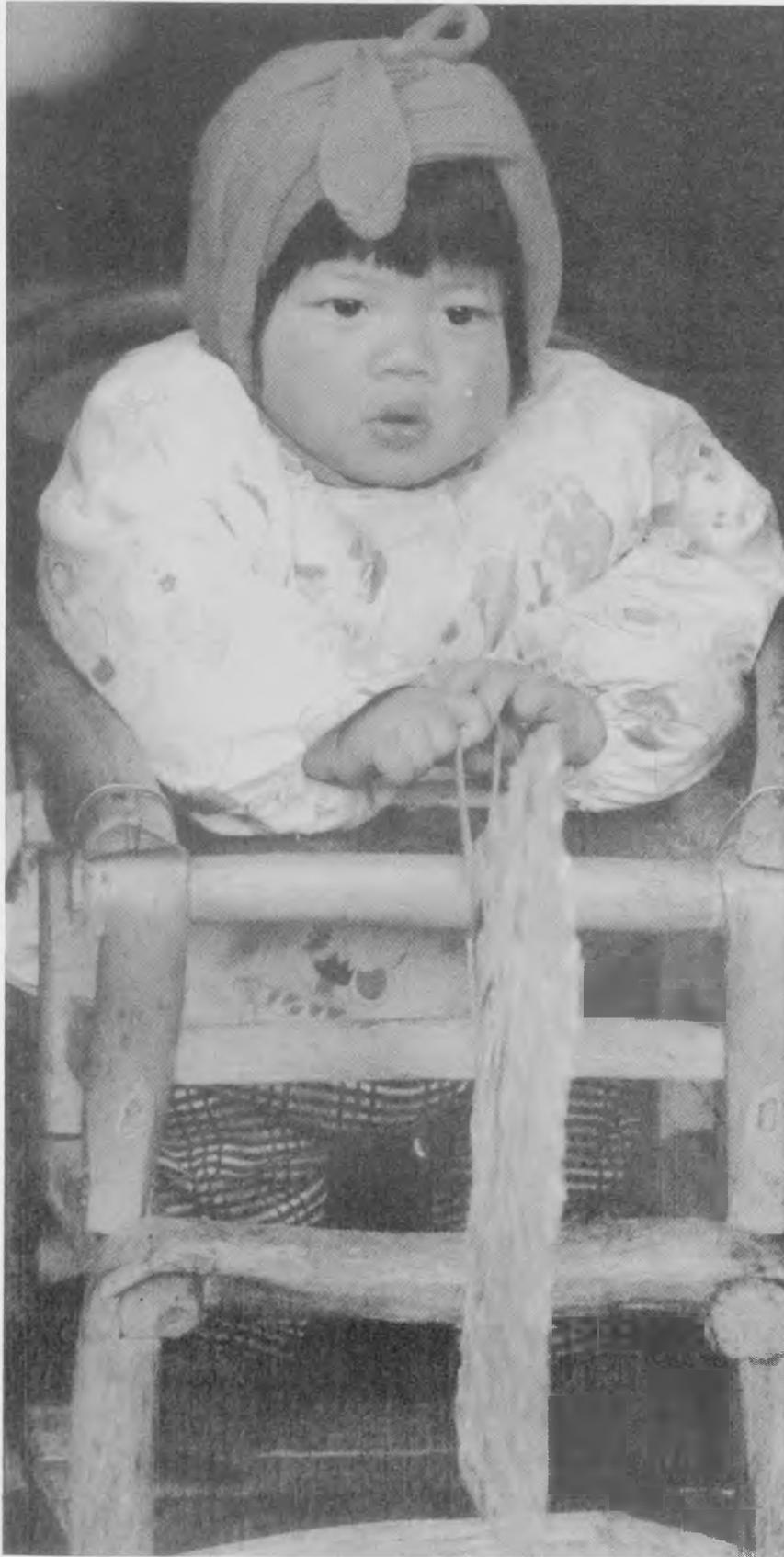


격월간

# 중국어를 주개로

1992.5.6

■ 통권 제 17 호



중국어문선교회

1992.5.6

목차

## 메세지

|                        |   |
|------------------------|---|
| 은혜받은 자의 고백/김상철 목사..... | 2 |
| 본선교회 인천지부창립예배 말씀       |   |
| 서로 사랑하라/표세홍 목사.....    | 4 |
| 각대학성경반 부활연합예배 말씀       |   |
| 하나님이 찾는 사람/우심화 교수..... | 8 |

## 스케치

|                        |    |
|------------------------|----|
| 인천지부창립예배 스케치.....      | 6  |
| 각대학성경반 부활연합예배 스케치..... | 7  |
| 인천 성광교회 탐방.....        | 10 |

## 세미나

|                          |    |
|--------------------------|----|
| 4월 정기세미나                 |    |
| 중국선교의 현황과 전망/김성태 교수..... | 12 |
| 중국어로 찬양을.....            | 16 |

## 간증

|                    |    |
|--------------------|----|
| 중국성도의 간증           |    |
|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 | 26 |

## 중국풍물

|             |    |
|-------------|----|
| 중국의 민속풍물이야기 |    |
| 6월의 행사..... | 20 |

## 토막상식

|                        |    |
|------------------------|----|
|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 17 |
|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18 |
| 중국여행 상식.....           | 22 |
| 중국기독교 인물소전             |    |
| 중국문화와 기독교신앙을 융합시키는데 힘쓴 |    |
| 유명한 학자오버천.....         | 26 |

## 소식

|                      |    |
|----------------------|----|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 30 |
| 중국선교참고도서 안내.....     | 40 |

## 선교동정

|                  |    |
|------------------|----|
|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 42 |
| 대륙선교회 창립소식.....  | 45 |
| 중국어문선교회 소식.....  | 46 |
| 92년 선교대회 안내..... | 47 |

격월간

# 중국을 주께로

## 은혜받은자의 고백

감상철 목사(신림교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 맺게 함이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롬1:13)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명예, 지식, 자녀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공로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공짜로 생각함에는 심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알고 많이 받으려고만 한다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마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는 빛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은혜를 빛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1. 은혜임을 깨달으면 빛진 자가 됩니다.

사도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철저하게 빛진 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진 자다. 나는 빛진 자이므로 이 빛을 갚아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이다.” 사도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보면 자신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빛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빛진 자라는 것은 '은혜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는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출이요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저 받으면 은혜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으로 받아야 하고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을 빛진 자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받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댓가로 세운 희생때문이다. 우리를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비싼 것이 어찌 우리에게 싼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2. 빛진 자는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 다. 그러나 빛은 사람에게 졌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길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그리스도가 돌보던 사람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의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행20:24)고 했습니다.

3. 그리스도인은 가진 자가 빛진 자입니다.

세상사람들은 없음으로 빛진 자요 우리는 있음으로 빛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이렇게 구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묻기를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였나이까? 할 때에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빛과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다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빛이요 필요한 자에게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나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운 지식이, 가진 것이, 건강한 몸이, 빛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갚아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진 것을 빛으로 알지 못하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빛으로 알고 갚을 자를 찾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갚을 것이 많은 채무자로 살아갑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

# 서로 사랑하라

표세홍 목사(양무리 교회)

耶穌愛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어쨌든 예수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6.25 사변 때에 이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끼쳤던 중국은 우리 교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한때는 원수로 취급하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많은 교포들이 고국을 찾아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며 인천지부 창립에 앞장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죄악에 가득했을 때 요나를 그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민족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그 소명을 회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요나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어가면서 저 중국복음화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근 50년 동안이나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오던 한국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기 어렵고 또 간다 해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중국의 교포들을 한국에 대거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의 소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애급으로 오게 하시고 변창케 하시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포가 저 중국 땅에 가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 동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중국

복음화와 중국교포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포선교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포들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국적이 중국이기에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차별적인 대접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거하는 타국인, 곧 우리 동족이지만 국적이 이미 중국인인 그들이 여기저기 막노동판에서, 산업체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주일이면 1,000명에서 1,300명에 이르는 교포들이 돈 벌 목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은 돈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그의 구원의 복음도 모르는 교포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중국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 나아가 이북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을 내몸같이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 댓가 없는 희생으로부터 사랑이 꽃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닌 자기를 드리는 이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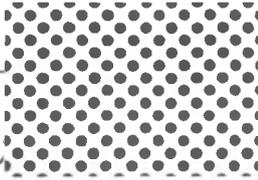
지금 밖에는 주님의 고난의 그 밤처럼 바

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사랑은 고난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기부인과 희생이 따르게 될 지 모릅니다. 오늘 이처럼 다른 분주한 일을 잊혀두고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중국전역의 14억 중국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이념과 국가를 초월하여 저 14억 중국영혼들과 300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교포선교를 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일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피곤하고 때론 아무 효과가 없는 듯싶어 낙심하게 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와 중국선교에 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여러 가지 일과 고난과 헌신의 노력을 다함으로 주의 귀한 일을 이루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중국어문선교회지부를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



# 중국선교의 새지평을 열어주시다

1992년 4월 17일 저녁 7시.

이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뜻깊은 밤이었다. 주님의 고난의 성 금요일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길목에서 다시 그 복음이 중국으로 되 들어가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려는 순간의 상징적인 밤이었다.

인천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층, 지부 사무실 308호 은혜관 옆의 집회실.

본회 주안도 간사의 인도로 모임을 가져온 인천식구들, 방송대 인천지역 중국어성경반과 인하대 중국어성경반이 오늘의 호스트. 외빈들을 위한 접대 준비를 하고 안내하고 찬양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 든든하였다.

강단 좌우에 부천 성은감리교회와 인천 성광교회가 보내온 창립축하 화분이 실내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 주는 가운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집회실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시키리만큼 편안하고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꼭 의자 위가 아닌 쪼스이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선교에 있어 새로운 도약점과 비전을 공유한 데서 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예배시작 전 성광교회 양치호 목사님께서 본회 예배에 자리하실 수 없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간단한 인사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예배는 본회 대표 박진국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밖은 마치도 주님의 그 고난의 밤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세찬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마음은 새삼 엄숙해지기까지 했다.

화목교회 최병국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양무리 교회의 표세홍 목사님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권면과 우다윗 UBF인천지역 대표의 축사 모두가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과 격려를 전해주기에 충분했다.

방송대 인천지역 중국어성경반 및 인하대 중국



어성경반의 중국어찬양은 이날의 예배가 중국을 위한 것임을 새삼 일깨워 주었던 순간이기도 했다.

또 본회 인천지부 지부장인 김광석 총무의 인천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내에 이 지회를 창설하게 된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사역계획보고가 있었다. 우선 방한중국교포 사역을 인천교회와 성도와 협력하여 터미날 사역, 전도집회, 제자훈련 등을 추진하고 중국선교의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선교중국어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인천 각대학의 중국어성경반의 활동을 지원한다.

또 중국선교에 있어 현지상황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모임과 세미나를 개최, 그 정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린다. 한편 외향선교회와 협력하여 정박중인 중국선박에 올라 중국어로 경배와 찬양, 말씀증거를 통해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일예배를 중국어로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등의 다섯 가지의 구체적 선교비전을 제시해 주어 참석자 모두에게 실제적 헌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전을 주었다. 다음에 이어진 기도의 시간은 이런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모두가 온방이 울리도록 합심하여 간구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다른 저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듯 오늘 이 밤에 드러진 첫 헌신이 중국선교의 새 길을 열게 되리라. 어느 때나 끝은 아쉬운 법. 조성남 집사님을 비롯한 인천식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샌드위치와 김밥 그리고 음료를 마시며 나눈 교제는 또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 갈길들은 멀었지만 마음마다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침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밤이었다. ■

## 각 대학 성경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양혜선(본선교회 교육부원)

먼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심화 목사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새롭고 결심을 다시 갖게 하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악의 수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사명을 받은 자가 복음전파에 전력을 기울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가 소속한 대학 중국어성경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금년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대에서 외롭게 시작한 중국어성경반이었는데

그날 동승교회 교육관에는 방송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인하대, 이화여대, 북한선교신학원에서도 중국어성경반이 조직되어 100여 명의 형제자매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조직되지 않은 외대와 국민대에도 중국어 성경이 조직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리상 참석치 못한 방송대 부산지역과 광주지역 식구들까지 합하면 우리 중국어성경반 가족은 실로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우리가 큰무리가 되었고 나 혼자만의 나눔에서 전국적인 만남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중국대륙의 선교를 위한 주님의 격려가 아닐까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각 대학끼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적으로 모여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황홀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특별히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연합예배로 모이도록 주선해 주신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



#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우심화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행 13:22)

만약에 우리가 중국대륙에 가게되면 시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혹은 수십 수백명씩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일감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 구정을 천후에 돌아오는 배표를 사기위해 천진을 한번 갔다 온적이 있었는데 오고가는 중에 북경과 천진역에서 적지 않은 유동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내가 놀란 것은 천진에서 남개대학을 가는 도중의 고가다리 밑에 수백 명의 남녀들이 모여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려고 몰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남개대학의 정선생과 부근을 지나칠 때야 비로소 그들 역시 일을 찾는 사람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중국에는 수천만 명의 젊은 남녀가 일자리를 찾아서, 더 좋은 대우를 찾기 위하여,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몇천 몇만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습니다. 뜯구름을 잡으려고 헤매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탄식과 연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금의 인류역사와 지금의 우리를 돌이켜 본다면 앞서의 중국인들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현재의 우리도 끊임없이 '찾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과 평화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순간적인 세상의 영원, 완전, 평화와 사람을 찾아서 끊임없이 '찾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상과 포부, 더 좋고 더 의미 있는 바 혹은 더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인류의 역사는 바로 '찾음'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인류가 왜 반드시 찾고 찾아야 했던가 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점은 이 찾는 일이 인류나 자연계만의 전유물이 아니요 하나님도 역시 찾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찾는 일은 하나님쪽에서 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있느냐?(창3:9)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하여 숨으려 하고 잡아 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를 범한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는 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들의 기독교는 찾고 찾아지는 종교라고 덧붙여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찾으심에서 시작하여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찾아지는 데에서 마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높고 거룩하시며 흠없는, 근본적으로 무

엇을 찾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은 낮고 추하고 찾을 만한 아무 가치없는 자들을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폐역하고 더럽고 험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되 찾으시기 위해 압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심지어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두 하나님께 찾은바 되어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행 13:22) 라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만을 찾고 있지 않으며 구속의 은혜로 이미 찾아진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찾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쓰심과 선한 의도는 우리들이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해 사울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를 폐하셨고 다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폐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중심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 13:22, 삼상 13:14)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귀기울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중국대륙에는 십수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지 더 좋은 물질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만 좀더 편안한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맹목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께 되찾은 바 되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하여 한발 한발 멸망의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중국에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불고있는 정치열풍, 졸업장열풍, 장사열풍은 실로 더 나은 육신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점차로 사회주의 손아귀를 벗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제 금전 만능주의의 손아귀에 의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림받고 사망으로 걸어가는 중국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서 그의 구속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증거해 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가서 십수억 중국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되찾으신다는 좋은 소식을 중국인에게 전해주어 그들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원무궁한 복락을 누리며 생명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십수억 중국을 이끌어 내어 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멘'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중국인을 찾겠다는 큰 이상을 품고 가서 영혼의 안식과 보금자리를 잃은 중국인을 되찾아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

## 인천 성광교회를 찾아서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우리에게 성광교회가 크게 다가오게 된 것은 아마도 중국교포선교 내지는 향후 중국선교에 있어 중요한 관문으로 등장한 인천항이 위치한 지역적 중요성과 더불어, 성광교회가 때맞춰 세계 선교센터를 개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중국교포선교와 중국인 선교에 있어 인천에 지역적 거점이 절실히 필요했던 본회로서는 사실 성광교회에서 흔쾌히 필요한 사무실을 허락해 준 데 크게 감격하고 있던 터였다. 사전에 성광교회나 담임목사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이 찾아가던 기자에게는 성광교회에서 받은 충격(?)이 신선하기까지 했다.

우선 정문에 들어서면 순간, 낯은 교회당과 그 옆으로 바짝 붙은 현대식 4층짜리 선교센터 건물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눈에 들어왔다. 기자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신 양치호 목사님의 영접을 받으며 대담하는 중에 이 묘한 건물의 대조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지은 지, 약 20년이나 되어 지붕이 새는 교회당을 짓혀두고 온 교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교센터를 짓게 됐다는 설명은 이미 이 교회가 비범치 않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더구나 선교센터의 운영이 교회 남녀전도회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고 모두 무급의 자원봉사



핀다는 설명은 부럽기까지 한 대목이었다. 이런 일들의 원동력은 어디에서일까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목사님 티(?)를 느낄 수 없는 양 목사님과의 대답중에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목사님의 돈키호테식의 순종과 발전적 비전의 개발이 전교인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간 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에 무관심한 교인들을 다짜고짜 대만으로 데려가 현지 노방전도를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현장인식과 열의를 불러일으킨 것이 성광교회의 새로운 출발이었다고 했다. 비록 간단한 중국어만을 익히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전도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고 했다. 기자가 양 목사님에게 중국선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직 한 일이 없다는 서두의 말씀과는 달리 성광교회가 이미 올바른 중국선교를 행하고 있으며 또 중국선교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비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중국선교는 동양인이 적합하며 그 역량이 한국인에게 부여된 점을 들어 중국선교가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객관적으로 말씀하면서, 중국교포를 선교하게 된 처음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초기 중국교포가 입국해 서울역 등지에서 복적 거릴 때 소문을 듣고 인천에서 그 곳까지 갔던 양목사님은 전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 즉석에서 전도문을 적어 인근 인쇄소에서 수백 부의 전도지를 제작하여 뿌리면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성광교회로 오라고 초청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때 수백 명이 성광교회에 오겠다고 했으면 어쩔려고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면 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일은 뛰어들어 하는 것이지 이것 저것 걱정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아무튼 이 일로 해서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양육도 받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성경을 알고자 하여 신학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성광교회의 중국교포 양육의 특이한 점은 그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교포가 양육받기를 위해 교회에 숙식할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것을 약속받고 들인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현재 기꺼이 그렇게까지 하며 양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진실성을 선별하여 양육함으로 중국선교에 있어 조심성을 기하려는 노력도 말씀했다.

중국선교에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을 보일 때'라며 사랑만이 닫혀진 교포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실례도 들려주었다.

성광교회의 중국선교를 포함한 세계선교의 비전은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선교를 위해 선교센터를 알차게 운영하려는 양 목사님의 구체적인 비전은 막연하지가 않았고 또한 인근 인하대학을 중심으로 한 200여 명이나 되는 '청년회'의 인적자원도 이런 계획과 맞물려 성광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여겨졌다. 기자가 받은 신선한 충격의 다른 하나는 성광교회와 양 목사님의 '개방성' 즉 열린 마음이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어떤 그리스도의 지체들과도 연합하며 돕겠다는 자세가 선교센타내에 들어오게 될 여러 선교단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우리는 양 목사님으로부터 염치불구하고 선교센타내의 교제장소를 겸한 식당에서 값싸고도 맛있는 비프스테이크를 대접받으며 이런 교회가 이곳저곳 자꾸 생겨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

## 중국선교의 현황과 전망

김성태 교수(충신대학원 선교학)

**중국교회의 긍정적 요소,  
그것은 신앙으로 무장된 토착지도자들의  
건재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교회부흥의 기반이 된다.**

-4월 중국선교세미나 내용을 전재합니다- (편집자 주)

**본**인은 8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2월까지 8번에 걸쳐 중국을 다녀보았다. 다니면서 계속 중국선교를 위한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우선 7-8명이라도 파송해보려 했으나 막상 중국현지에 내보내려 하니 준비된 사람이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중국은 이미 회어져 추수하게 된. 인구 십수억의 엄청난 추수밭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만여명을 파송한다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할일이 태산같은데 그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제 한국교회는 중국선교에 진지하게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문이 열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지금도 누구든지 마음의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서나 대륙에서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

오늘 본인은 이 세미나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그 첫째는 중국교회 역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리해 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중국교회가 봉착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현지접촉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이것은 선교현장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 중국선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중국선교 전문기관의 안내와 어느 정도의 사전 훈련을 받고 중국에 들어가 한번 부딪혀보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그럴 때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중국선교가 무엇인가 그답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다.

### 1. 역사적 평가

먼저 중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선 부정적 측면을 냉정하게 살펴보자.

첫째, 정치적이며 혼합주의적 선교였다. AD 635년 네스토리우스 동방교회(경교)가 최초로 중국 당조에 선교사 알로웬을 보내 845년까지 선교를 계속했다. 그리고 AD1292년 프란체스코회가 몬테코비노를 파송했고 이어 1583년부터 1721년까지 로마 카톨릭 익나시스 로올라의 예수회가 중국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행했다.

이들의 선교에 있어 그 선교대상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대중이 아니요 황실이나 학자 등 정치적 실권층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선교는 순수한 선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연루되어 그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므로 중국교회를 잘 아는 현재의 중국당국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를 흔들지나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동구나 소련의 몰락의 주요원인이 기독교적 세력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터에 우리는 최소한 그들이 기독교 선교가 그들에 대한 체제도전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선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토착화를 시도함에 있어 바른 신학이 없었다. 애초에 이들은 중국의 조상숭배와 경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연적 은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의 핵심을 양보함으로써 기독교의 특색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

부언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확신있는 한국의 평신도선교사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교회의 눈에 한국교회는 어디에도 없는 새벽기도가 있고 목회자를 대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심있는 교회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국주의적 선교와 복음의 왜곡이다.

18세기말 산업혁명으로 정치·경제·문화적 제국주의는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복음을 왜곡전달하는 상황적 요인이 되었다.

로버트 모리슨, 윌리엄 밀러, 찰스 꾸즐라프 등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사실상 순수한 선교 열정을 지닌 훌륭한 선교사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선교문호가 개방되지 않고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영국이나 화란의 상인들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편무역선에 동승해서 통역을 한다는지 그 배로 선교 목적지에 간다든지 하는 역사적 족적을 남기고 있다. 오늘날 이런 그들의 행적이 중국당국과 중국교회에 최대한 수집되어 있으며 이것이 서구 열강의 비윤리적 반기독교적 행태와 함께 도매금으로 매도당해 복음의 본질 전달에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중국인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비애국적인 일로 비쳐졌음은 이러한 상황적 배경이 있었다. 1920년대에 한국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곧 애국적 일로 여겨졌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아직도 이런 상처가 중국인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백인선교사가 아닌 한국선교사의 선교책임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로 토착지도자의 인재양성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중국에 기독교가 소개된 이래 겨우 1760년에 이르러서야 지방신학교가 설립되었을 뿐이다.

선교는 우리가 가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식을 교회를 세우고 모든 행정을 간섭하면서 우리가 영적 아버지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착교회의 약하고 부족된 부분을 나누며 섬겨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착지역에 뿌리박혀 자기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토착지도자가 주체적 세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도

와주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중국교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중국본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복음화는 궁극적으로 중국교회에 맡긴다는 말이다. 즉 토착인재의 양성이란 점에 경교나 예수회의 선교는 큰 결함을 남겼다.

넷째로, 사회복음의 대두이다. 사회복음은 예수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주로 여기기보다 인간이 따라야 할 고상한 인간모델로 본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개발과 사회교육운동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일종의 인본주의의 운동이다. 이 사상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의 젊은 지식인들이 서구의 제국주의의 비윤리적 성격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느끼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런 흐름을 타고 상해의 YMCA총무로 활동하던 오요종·조자신·유영모·장설모·등유지 등이 불란서로 유학가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목사들과 연합하여 중국전통적인 신학이 아닌 진보적인 사회복음 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신학조류는 오늘날 민중신학과 해방신학과도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배경이 오늘날 좌익사상을 확고히 지닌 정광훈이 3자교회의 대표로 부각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앙으로 무장된 토착지도자들의 존재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교회 부흥의 기반이 된다.

1807년 개신교 선교기관 중 특히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계통의 존·캠벨, 길슨 앤더슨 등이 자급·자치·자전의 토착교회 운동을 세계교회에 발표한 이래 이것이 향후 100년 동안의 선교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선교사들이 이 원리를 중국교회에 그대로 적용, 중국지도자들에 의한 자생토착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는데 비록 힘은 미약했으나 그 노력은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토착문화에 유의하여 강의식이 아닌 성경암송 등 직감적 방식을 채택하여 성경을 접하게 한다든가 영수(leader) 조사(helper)제도를 정착시켜 정규적인 장기 신학교육이 아닌 필수적인 단기 신학반 개설과 현장사역을 겸하게 한 비격식적 역동적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훌륭한 평신도지도자를 배출해 내었던 것이다.

오늘날 70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주요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CIM(중국내지선교회) 등을 통해 이렇게 양성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4인방의 몰락과 등소평의 등장이다. 문화대혁명 기간은 중국교회의 흑독한 시련기였다.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따랐다. 그러나 뒤이어 등장한 등소평은 문혁기의 잔재로 남은 경제적 파탄을 타개하기 위해 서구 자본유입의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3자애국교회 같은 국가통제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농경의 집단체제 대신 점차로 개인소유농지를 늘리고 자유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여행의 자유도 생겨났다. 따라서 이 기류에 편승하여 가정교회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졌다.

## 2. 관찰적 참여를 통해 본 중국교회 현황

오늘날 우리는 중국교회의 실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3자교회라는 실체는 무엇인가? 반드시 현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3자교회를 접촉해 보면 거기에도 진실한 목사와 신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3자교회가 국가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3자는 잘 알다시피 자급·자치·자전의 선교원칙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3자에는 정치적 의미가 깔려 있다.

1982년 3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종교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무신론적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중국공산당 종교정책의 불변하는 이념적 기초석이다. 따라서 종교는 궁극적으로 고도화된 통제와 무신론적인 교육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천명한 이래 최근에는 그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들의 국가 신학교에 가보면 강의의 50%가 정치교육이고 도서관에는 책이 없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조사해보니 중국유학생들이 해방신학을 배우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신학교교수로 임직된다. 이들에게 정상적인 신앙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3자교회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문화개방과 교육과 통제의 최대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국가통제하의 교회다.

삼자교회를 접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삼자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받았을 때는 공식적인 비디오 사진촬영, 설교, 간증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보자. 삼자교회의 어떤 목사가 자기 강단에서 행한 설교 녹음테이프를 종교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천과 내몽고의 교회로 보냈다가 해임되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설교자’ 외엔 누구도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우리식으로 무신경하게 접촉해서는 안된다. 이제껏 지혜롭게 역동적으로 일했던 삼자교회 목사들이 지금 노출되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6·4천안문사태’ 이후 삼자교회나 가정교회를 막론하고 지식층의 젊은이가 대거 교회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공산당 이념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산당원은 더이상 저들의 매력이 아니었고, 이제는 누가 돈을 더 잘 버는가가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또 전도를 해보면 특히 젊은 대학생들은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공산주의 이외의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저들의 마음은 채워져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가정교회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볼까 한다.

요즈음 가정교회는 심각한 핍박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지성도들을 접촉해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은 예전과 달리 극도의 긴장감과

조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교회는 공식적인 3자교회, 3자교회에 등록된 가정교회, 등록중임을 표방하되 미등록된 가정교회, 끝으로 철저히 지하로 숨은 가정교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구권과 소련 몰락 이후 특히나 북경 아시안 게임 이후 당국이 교묘하고도 적극적인 핍박의 손길을 가정교회에 뻗어서 통폐합시키거나 불응하면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백 군데의 가정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가정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극도의 보안유지에 힘써야 하며 앞으로 한중수교 이후는 더욱 그러해야 하리라 본다. 한편 요즈음 하남지역 중심으로 기독교가 흥왕하고 있는데 실제로 3,000만의 인구 중 2,000만이 기독교인일 정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로 자생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구원에 있어 성령의 외적 은사를 강조하는 부류, 모든 병의 근원을 귀신으로 보는 부류,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성경보다 중시하는 부류 등, 불건전한 신앙 행태가 속출해서 뜻있는 건전한 지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국교회의 건전한 신학형성과 중국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문서선교의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간자체 관주성경, 신학적 교재, 성경공부교재, 올바른 신앙서적 등이 몹시 요청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중국에 들어가는 기회에 성경이나 이런 서적들을 지혜롭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몇 가지 중국선교에 대해 도전과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문화우월 의식이나 물량위주의 선교는 지양해야 한다. 중국에다 무슨 시설투자를 해서 선교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자.

둘째 중국이 필요로 해서 원하는 분야(위생, 건축, 전자, 전기...)의 선교인재양성에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권하고 싶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사람을 키우자는 말이다.

셋째, 중국선교를 너무 떠벌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 것이다. 이런 식의 선교로 진행중인 일도 무너져버리고, 귀한 헌금과 인력만 낭비한 사례를 비일비재로 목도하고 있다.

넷째, 선교에 있어 평신도와 목회자 선교사를 적절히 조화시켜 사역에 팀웍을 이루도록 돕고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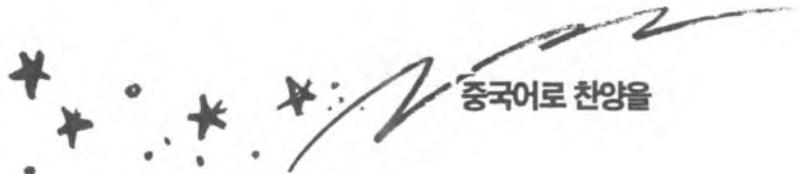
다섯째, 중국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새로이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중국은 아직 복음에 대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역사 의식과 소명의식이 없는 단견에 불과하다.

우리가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던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본인은 실제로 중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중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며 얼마나 무르익어 있는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금 1만 명을 중국에 보낸다 해도 너무나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느끼리만큼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어려운 지역인 중국의 성도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도움이 절실하다면 우리는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름을 회피할 수 없다.

지금 얼마나 주님께서 빠르게 일하시는지! 중국·북한·러시아·한국·일본 등 동북아 제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목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발빠르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 놓으신 길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지금 중국에서 일할 준비된 일꾼, 헌신된 일꾼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 ■



중국어로 찬양을

讚美耶穌聖名  
Praise the Name of Jesus

Words and Music by  
ROY HICKS

E<sup>b</sup> Gm A<sup>b</sup> B<sup>b</sup>sus B<sup>b</sup> E<sup>b</sup> Gm

1 3 5 5 | 6 - 5 - | 1 3 5 5 |

讚 美 耶 穌 聖 名, 讚 美 耶 穌

A<sup>b</sup> B<sup>b</sup>sus B<sup>b</sup> A<sup>b</sup> E<sup>b</sup> A<sup>b</sup> E<sup>b</sup>

6 - 5 - | 6 6 6 5 - | 6 6 5 4 3 |

聖 名 祂 是 磐 石, 祂 是 山 寨,

A<sup>b</sup> E<sup>b</sup> F7 B<sup>b</sup>sus B<sup>b</sup>

6 . 6 6 . 6 5 4 3 3 | 2 3 4 5 - |

祂 是 我 的 救 贖 主, 我 要 信 靠 祂。

E<sup>b</sup> Gm A<sup>b</sup> B<sup>b</sup>6 B<sup>b</sup>7 E<sup>b</sup>

1 3 5 5 | 6 - 5 4 | 3 - - - ||

讚 美 耶 穌 的 聖 名。

유니폼 가사

예수이름찬양 예수이름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이름찬양

#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祭, 祭, 祀

제사·제

짐승[夕:肉]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示]께 다시금[又] 예배  
드리며 여호와와 이름을 붙였다.

夕(月) + 又 + 示 = 祭  
동물            또다시            하나님            제사·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116:17)

善, 善, 善

착할·선

양(羊:羊)의 말[言:言]은 선  
(善)하며 옳다.

羊(羊) + 言(言) = 善  
양            말씀            옳게여길·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막10:18)

詳, 詳, 詳

자세할·상

양(羊)의 말[言]은 자세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님의 특권을 계시적으로 나타낸

다.

言 + 羊 = 詳  
말씀            양            자세히 판단하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  
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루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계19: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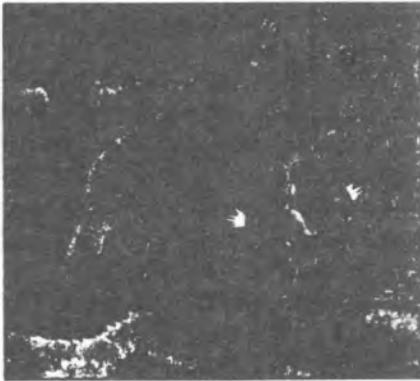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중에서)

# 다시 살아난 나사로



马大、马利亚和她们的弟弟  
拉撒路和耶稣是好朋友。  
现在，拉撒路病得  
快要死了。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와 예수님은 좋은 친구였다.  
지금 나사로는 병이 나서 곧 죽게 되었다.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모셔 왔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당신께서  
만일 일찍 여기에 계셨더라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거예요."



"马大，信我的人虽然死了，  
将来必复活。"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장차 반드시 다시 살 것이다."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를 뵈러왔다 "당신께서  
일찍 여기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묘지가 어디 있느냐?"



他们来到一个被石头  
封住的墓穴前。

그들은 바위로 봉한 무덤 앞에 다다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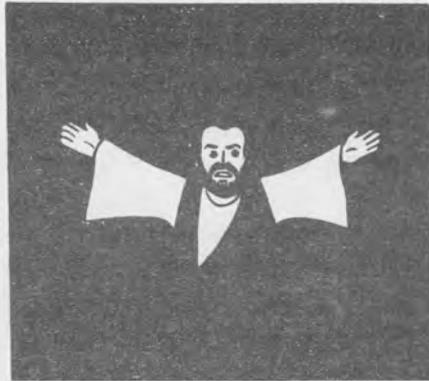


“바위를 옮겨라.”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걸요.”



石头被移开了，  
主耶稣向神祷告。

바위가 옮겨지자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런 뒤에 큰 소리로 말씀하였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것 좀 봐!” “오!” “야!”



“解开他。”

“그를 풀어놓아라.”



“主耶稣真是  
神的儿子。”

“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6월의 행사



### 一. 看穀秀

속담에서 말하는 「6월 6일 曬衣服」처럼 북경과 부근 각 도시에서는 6월 6일을 「曬衣曝書」라고 부르는데 옷이나 책을 꺼내 햇볕에 말려서 좀에 먹히지 않게 한다.

또 「6월 6일 猫狗浴」처럼 부녀자들은 머리를 감고 개나 고양이를 목욕시키게 된다.

이밖에도 농촌 각지에서는 또 이날에 여러 특별한 행사를 치른다.

하북성의 三河縣에서는 사람들이 6월 6일에 물건을 물 속에 잠그게 되면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절강성 富平縣에서는 사람들이 날이 밝기 전에 물을 길어다 국수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을 「壓麵」이라고 하며 액막이를 할 수 있다고들 한다. 섬서성 威寧縣에서는 이날 「麵湯」이나 「新果」(처음익은 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다. 섬서성 廷綏鎮 사람들은 이날 아주 일찍 일어나 요리를 만드는데 이런 요리를 「漿水」라고 부르며 조상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수가 된다. 이 외에도 하북성 順義縣의 농촌에서는 속담 속의 「초여름의 饅頭, 6월 6일의 麵」이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국수를 먹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북 通縣의 농가에서는 이날 土穀神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행사를 「掛土地頭」라고 부른다. 호남성의 寧遠縣에서는 6월의 辛日을 택해 햇곡식을 먹는다. 이런 습속은 옛날 사람들이 5곡은 개꼬리가 씨를 뿌려 주어 전해오게 됐다는 것을 믿은 데서 생겨났다.

### 二. 魯班爺의 생일

6월 13일은 「魯班爺」의 생일로서 「魯班爺」는 「孟子」에서 언급된 公輸이다. 이 사람은 원명이 公輸班인데 魯나라 사람이었으므로 魯班이라고 불려졌다. 전해지기는 魯班은 솜씨 좋은 장인이었으므로 그 神像의 손에는 곱자가 쥐어져 있다고 한다. 중국 건축의 참고서인 魯班經 3권은 그가 지었다고 한다. 때문에 木匠, 瓦匠, 石匠 등 장인들은 모두 魯班을 祖師로 받든다. 각 지방마다에는 魯班爺가 건축했다는 탑, 다리 등에 관한 전설이 있다.

북경 前門 밖의 精忠廟, 西直門 밖의 魏公村 朝陽門 밖의 東嶽廟에서는 魯班爺의 제사를 받들고 있는데 북경장인들의 지극한 존송을 받고 있다.

### 三. 分龍兵

화북지방에서는 6월이면 항상 비가 내린다. 어느때는 독이 터지는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북경의 동편교외의 농민들은 6월 13일을 「分龍兵」이라고 부른다 또 용왕이 이날부터 시작해 용병을 파견해 보내서 구름과 비를 부린다고 믿고 있다. 하북성 順義현의 농촌에서는 옛 속담에 「거북이 한바탕, 토끼 한바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비가 많음을 의미하며 못 신들이 비를 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때에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면 소녀들은 종이를 잘라 인형을 만들어 문 원편에 달아 비가 멈추기를 기원한다. 이런 방법을 「掃晴娘」이라고 부른다.

#### 四. 水母娘娘의 생일

6월 17일 水母娘娘의 생일로 알려져 있다. 북경부군 杯柔縣茶村의 「廟會」(옛날 잣날 또는 일정한 날에 절 안이나 부근에 임시로 설치하던 장)는 자못 유명하다.

茶候村의 水母娘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어떤 산에 의지할 데 없는 집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 사람이 민며느리 하나를 들였다. 그러나 항상 그녀를 학대하였다. 이 민며느리는 매일 물 길는 일을 해야 했다. 이상한 일은 이 집 사람들이 물을 쓸 때는 다른 곳에 가서 물 길은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이 민며느리가 막대기로 물항아리를 치기만 하면 물이 연달아서 솟구쳐 나왔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작은 고모(아버지 누이)가 민며느리를 흉내내어 나무 막대기로 물항아리를 쳤더니 물이 솟아나왔다. 그러나 이 고모는 어떻게 물을 멈추게 하는지를 몰라 물이 넘쳐나 홍수가 나고 말았다. 이때 이 민며느리가 당황하지 않고 물 항아리 위에 단정히 앉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후에는 물항아리와 함께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서 茶候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곳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신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 그녀를 기념하게 되었다.

이 지방 일대에는 「茶候廟」는 침수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속담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의 뜻은 이 해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6월 17일 茶候廟의 廟日會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산서 太祠原 서남쪽으로 60리에 있는 普鎮에도 마찬가지로 水母娘娘을 제사지내는데 거기에 茶候廟와 대체로 비슷한 전설이 나타나 있다.

#### 五. 馬王爺의 생일

6월 23일은 馬王爺(가축을 보호하는 신)의 생일이다. 馬王爺는 빨간 얼굴에 눈이 3개이고 표정은 무섭고 네 팔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 종이

신상위에는 「水草馬明王」이라고 써 있고 신상 밑면에는 보호받고 있는 작은 말이 그려져 있으며 그 말 밑면에는 또 사료를 말에게 먹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날 농가에서는 간단한 제수를 馬王廟 신상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된다.

과거에는 이날이 되면 도시의 馬王廟는 몹시 북적대어서 어떤 때는 차삿이 배로 된다. 또 손님들에게 억지로 「乞福錢」을 요구하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더이상 볼 수 없다. 게다가 馬王爺는 在裡教(비밀결사의 하나로 금연, 금주를 지키며 만청정부를 뒤집어엎을 것을 주장했음)에 속해 있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사지낼 때 양고기만으로 공물을 삼았다. 북경 新華門 밖의 馬王廟가 제일 유명하다.

#### 六. 關帝의 생일

6월 24일은 關帝의 생일이다. 이날은 關帝廟에서 성대한 제전이 거행되는데 북경 동편교외의 六里屯이라 불리우는 작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이날에 공동으로 출자하여 돼지머리나 만두를 사다가 신앞에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 아울러 사당 안 탑에다 천막을 덮고 아침 10시쯤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무리가 함께 돼지고기를 먹는 습속이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특히 장사하는 집에서) 關帝의 종이 신상을 장식하고 또 노란 지점이나 종이로 만든 元寶를 공물로 바친다.

속담에 「올해 關王이 취했으니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이날 비가 내린다고 믿는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關王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월의 행사는 근본적으로는 일종의 농경의례로서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

「中國民俗學」中에서

# 중국여행상식

## 1. 중국의 화폐와 돈의 가치

① 화폐 단위는 元(유엔, 块 구와이), 角(지아오, 毛 마오), 分(펀)으로 1元(유엔)이 10角(지아오), 1角(지아오)이 10分(펀)이다.

② 화폐로는 일반 중국인이 사용하는 돈으로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인민폐(人民幣:런민폐)와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달러나 엔화 등을 환전할 때 받는 돈으로 중국은행이 발행하는 外匯兌換券(와이후이뚜이반쥬엔) 혹은 外匯券(와이후이쥬엔)이 있다.

### ③ 人民幣와 兌換券

外匯券은 그돈이 원래 외화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발행된 돈이다. 때문에 외화로밖에 살 수 없는 고급품이나 수입품 등을 살 수 있고 또 상품을 구입할 때 일종의 면세조치가 있으며, 人民幣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을 출국할 때 재환전할 수 있는 것은 外匯券이며 人民幣는 환전할 수 없다.

일반상점 등에서 쇼핑을 하거나 길가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받게 되는 거스름돈은 대부분 人民幣이며 보통시장이나 노점슈퍼에서도 人民幣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호텔요금, 호텔안의 레스토랑, 국제여행사에 부탁하여 표를 살 때에는 外匯券을 요구한다.

### ④ 환전지식

중국에 입국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돈을 外匯券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 환전은 중국은행이 하고 있으므로 어디서 환전을 해도 환율이 낮다든가 높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없다. 공항이든 호텔이든 그곳에 있는 환전소는 전부 중국은행의 지점이다. 그러므로 비율은 모두 같다. 또한 환전소는 호텔(외국인 접대용 호텔), 友誼商店(요우이 상디엔: 외국인 전용 백화점), 국경에는 반드시 있다.

환전할 때에는 반드시 1 국학교환증명(Exchange Certificate)을 써야 한다. 그 복사본을 받아 보

관해 두고 출국시 남은 兌換券은 재환전할 때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잃어버리면 재환전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2. 여행상식 도구와 복장

### ① 등에 지는 배낭이 가장 좋다.

배낭이 좋은 점은 같은 무게라도 오래 지낼 수 있으며 두 손을 쓸 수 있는 점이 좋다. 차표를 산다거나 돈이나 여권을 꺼내거나 사진을 찍는 등 어떤 경우에도 짐이 등에 있으면 일일이 내려 놓지 않아도 되어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 ② 귀중품 보관법

귀중품 주머니나 전대를 꼭 지닌다. 여권과 돈은 잃어버리면 완전히 여행이 중단되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한다. 그렇지만 여행중에는 피로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몸주머니의 것에 대한 신경이 느슨해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때에도 절대로 도둑맞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백화점 등에 귀중품 주머니라고 파는데 여권 등의 사이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크를 붙여서 거꾸로 해도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거나 전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요즘은 돈을 넣는 혁대(벨트)를 파는데 그것을 이용해도 좋다.

### ③ 학생증을 가지고 간다.

호텔이나 교통편에서 중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요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중국인과 똑같은 호텔 객실이나 교통기관을 이용한다고 해도 외국인은 중국인의 2-3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학생증을 지참했을 때 차표를 끊거나 호텔객실을 구할 때 "학생인데 싸게 안될까요?"라고 해보는 것은 좋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의 창구나 호텔프론트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말하며 학생할인을 부탁할 수 있다.

또 중국의 대학에서 Language training을 받을 때 그 학교에서 학생증을 주는데 그 학생증으로 내국인과 같은 자격으로 여행할 수도 있다.■

# 중국문화와 기독교신앙을 접목시킨 저명한 학자 吳雷川(1870-1944)

浙江省 錢塘縣人

吳雷川(1870~1944) 선생은 영광스럽게도 清末에 매우 취득하기 어려운 진사와 한림이라는 직책을 얻은 지방의 옛 지주계급 출신이었다.

吳雷川은 본명은 吳震春이고, 雷川은 그의 字인데, 나중에 이 字가 세상에 알려져서 震春이란 본명은 비교적 덜 사용되었다. 그는 同治 9년(1870)에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절강성 항주부 전당현(浙江杭州府錢塘縣)에 살았는데 그가 출생할 당시 할아버지가 마침 江蘇의 徐州지역 지현을 맡고 계셔서 전가족이 그 곳에 모여 살게 되었고 오노천은 그 곳에서 태어났다.

그 후에 그의 아버지가 徐州 근처의 淸江捕 官아내에서 작은 관직을 하나 얻게 되어 온 가족이 청강포로 이사하여 살았다. 따라서 오노천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오노천은 17세 이전에는 이런 외부세계와는 단절된 고립된 지역에서 생활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서방문화인 기독교가 그가 살고 있는 성(江蘇省)의 연해 지역에서 전해진 지 몇 년이 지난 후였으나 오노천이 살고 있는 그 지방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들 형제에게 절약, 검소, 근면을 훈계하였는데 이러한 절약, 검소와 근로의 습관은 그의 평생의 중요한 습성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노천은 비록 진사에 합격하고 한림에 발탁되었지만 오히려 근궁하게 한칸의 초가집에서 살았으며 매우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는 생활해 나가기 위하여 江北 고등학교 교장의 직책을 수락했고 4년 동안 학교일을 맡아 주관했다.(1905~1909)

선통(宣統) 원년(1909)에 그는 진사관 업

무로 옮겨 갔고, 또 1년 후에는 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되었다. 또한 그는 새로 건립된 자의국의 회원직을 맡기도 하는 등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武昌혁명 후, 절강성은 혁명에 호응하여 독립하였다. 오노천은 그때 단기간 항주시장을 맡았지만 곧이어 끊임없이 지속된 소요를 평정할 도리가 없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중화민국 원년(1912)에 그는 절강성 교육청업무를 시작했고 1년이 안되어 다시 북경으로 초청받아 중앙정부 교육부 참사관을 맡아 부내 비서 업무를 주관하였는데 그 기간이 도합 14년(1912~1925)이었다. 민국 3년(1914) 그가 북경에 와서 관직을 맡은지 몇 년이 지나자 점차로 자신의 이러한 생기 없는 “~ 라고 시달한 명령, ~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라는 투의 틀에 박힌 업무 생활과 국가의 대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 대하여 극도의 절망을 느꼈다. 그는 후일 그때의 생활을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가운데 보냈다고 회상하였다. 당시 오노천에게는 두 명의 신실한 벗이 있었는데 북경 동태평에 있는 성공회 교회의 교우였다. 그들은 오노천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격려했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성경을 한 권 사서 자세히 읽고 연구하였다. 동시에 두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였다. 점차로 그는 장엄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예배의식에 감동을 받았고 목사의 진실되고 거짓 없는 설교에 감화되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다'라는 설교제목으로 강연할 때는 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때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점차 감동을 넘어선 매우 강렬한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드디어 학습세례반에 가입하였다. 그에게는 비록 기독교 신학 교리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과거 오랜 세월동안 찾았으나 얻지 못했던 심령의 평안을 기독교가 그에게 가져다 주었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한쪽으로 젖혀두길 원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세례를 받고 입교해서 성공회 교우가 되었다. 이리하여 그의 훗날의 다사다난한 인생은 시작되었다.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 8년동안 오뇌천은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했고 거의 조금의 비평도 없이 받아들였는데 민국 11년에(1922) 이르러 「非基督敎運動」이 시작된 후 그의 신앙심은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지키긴 했지만 이 때부터 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과정상의 기복과 변화는 당시 오뇌천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 또한 그와 같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신앙상의 변화는 자연히 그 전시대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으니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민국 6년(1917)에 중국내에 신문화운동이 발생하였다. 신문화 운동의 시작은 호적의 「中國文學改良芻議」라는 한 편의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그의 토론 대상은 사상과 문학방면이었는데, 그는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구문화를 깨뜨려야 한다고 했다. 구문화를 깨뜨리는 데 있어서 그가 공격했던 창끝은 유가문화를 가리켰던 것이었지 결코 기독교를 향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민국 8년(1919)에 이르러 유명한 5·4사건이 북경에서 발생한 후 신문화운동의 형태와 내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주장은 中外文化를 새로이 평가하여 가치 없는 것은 제거해 버린 다음에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공격받는 것은 여전히 유가사상과 봉건

사회 군벌정부 등이었지만 그 외에도 전통적인 중국과 서양문화의 기준을 감시 비판하여 중국과 서양문화와 사상 중에서 중국의 미래건설에 가치있는 것만을 설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은 문화의 각방면으로 넓혀지게 되었고 종교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자연히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5·4운동 이후 종교비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기독교가 종교의 한 지류였기에 자연히 엄격한 비판과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귀납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중국에서 받았던 도전은 '기독교가 국가 미래 사회 건설에 이득이 있는가?' 하는 종류의 문제였다. 기독교에 밀려온 충격은 마치도 광풍에 일파만장의 격랑처럼 그 파장이 대단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5·4운동을 맞이한 후의 충격과 도전은 자연적으로 기독교 교회 각계에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는데 반응의 방식과 종류는 매우 복잡하였다. 반응을 보였던 가장 영향력 있던 그룹은 전국 교회연합 조직내의 교회지도자들과 기독교 지식인들이었다. 전자는 誠靜怡, 余日章 등이었고 후자는 劉廷芳, 趙紫宸, 徐寶謙, 吳雷川 등이었다. 그들은 모두 신문화운동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신문화운동이 지닌 기독교에 대한 파괴적인 일면을 알고 있었다. 또한 만약 적절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나 인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후에 반기독교적인 파고가 더욱 높아지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誠靜怡의 영도 아래 민국 8년(1919)에 상해에서 중국을 주께 귀의하게 하자는 회의(中華歸主會議)를 열었다. 그때 토론한 주제는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중국에 협조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었다. 토론결과를 보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영성(靈性)의 힘에 의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국적인 中華歸主운동을 일으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기독교신도들 중 지식인들은 특별히 연경대학 교수직

을 맡고 있던 劉廷芳, 吳雷川, 徐寶謙, 趙紫宸 등의 영도하에 「生命社」를 조직하여, <기독교신사조운동>을 제창하였다.

계속해서 민국 9년에 북경에서 토론회를 소집하여 '기독교가 어떻게 하여야 문화운동에 상응한 견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에 관하여 깊이 토론하였다. 회의가 끝난후 북경 證道團을 조직하여 이후에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토론하도록 했다. 또한 자료를 찾아서 계획하고 편집하여 기독교가 중국에 있어서 실용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정기적인 간행물을 계획, 출판하기로 하여 <生命月刊>이라고 하고,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였다.

<생명월간>은 그해 11월 15일에 정식으로 출판되었는데 徐寶謙이 편집을 주관했고, 오노천은 중요한 편집인의 한 사람이었다.

오노천이 가입했던 生命社와 북경 證道團은 그들의 노력이 비록 효과면에서 성공적이기는 했으나 거센 물결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신문화운동이 발전돼 나감에 따라서 그곳에 묻어 있던 반종교의 씨앗은 계속 성장하였다. 가장 불행했던 일은 중국 공산당이 음모와 선동으로 중국인들의 격양된 민족주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마침내 민국 11년에서 16년(1922~1927)까지 전면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일으킨 것이었다. 이 운동은 상해, 북경, 광주 등으로 빠르게 뻗어나갔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최대의 도전을 받았다. 말하자면 1900년 庚子之亂(의화단의 난)에 연이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겠다.

반기독교운동의 맹렬한 도전에 직면하여 교회가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가서 변론을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인들의 반성적인 행동이었다. 토착화운동, 자립운동 등은 이러한 반성이 있는 후의 산물이다. 비기독교운동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 이시기의 오노천의 반응은 후자에 속한 것이었다. 그는 교회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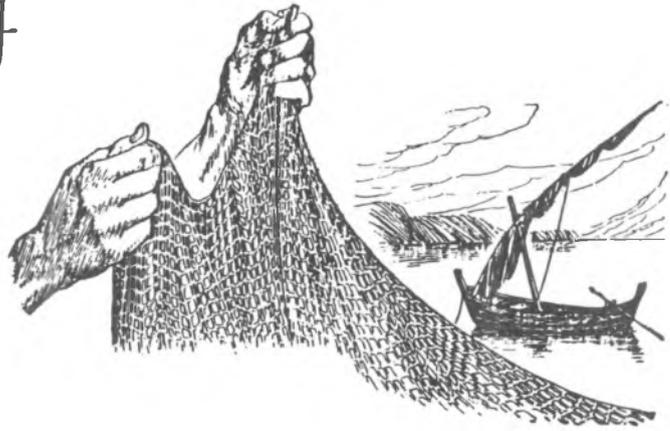
외국인과 외세의 산물을 증오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燕京大의 生命社를 탈퇴하고 별도로 寶廣株, 張欽士, 彭錦章, 吳耀宗, 陳國樑, 胡學誠 등과 함께 민국 12년(1923) 4월 1일 「眞理社」를 조직하고 「眞理月刊」을 출간하였다. 그는 「眞理社」일을 약 3년 동안 맡아보았다.

眞理社는 외국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가입을 거절하였고 서양교회와의 관계도 끊어버렸다. 그들은 중국적 풍격의 기독교를 힘써 주장하여 중국의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오노천은 그의 과거 전통학문 방면의 풍부한 지식에 대한 장점을 발휘하여 문자의 설명과 해석을 통하여 기독교와 중국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어보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계통의 저작 세편이 있는데 「기독교와 중국문화」(민국25), 「기독교인의 희망」(민국28), 「목적과 예수」(민국29)가 그것이다. 이런 작품들은 모두 기독교가 중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신념에 따른 산물인데 그는 이러한 연구 풍격을 선도한 인물로서 그의 저술은 그 계통의 공이 크다 하겠다. 오노천은 민국 11년(1922)부터 연경대에서 시간강사를 하였는데 14년(1925)에는 전임교수로 초빙되었다. 그 다음해(1926)에는 연경대 부교무장이 되었고 18년(1929)에는 다시 총장이 되어서 5년 동안 교무행정을 맡아보았는데 실적이 매우 뛰어났다. 민국 23년(1934)에 총장직을 사임하고 다시 교수로 돌아와 민국 29년(1940)까지 근무하다가 진주만 사변이 발생하고 연경대가 문을 닫게 되면서 그 곳을 떠났다. 그는 민국 33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75세였다.

梅胎寶 교수는 그를 칭송하여 "지혜가 많았고 인격이 온전하였으며 경험이 풍부하며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였다. 또한 부성을 온전히 갖춘 어른이었다."라고 하였으니 확실히 그의 일생에 걸맞는 찬사라 아니할 수 없다. ■

#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



-이렇게 구원을 받다-

나는 불신가정에서 자라났다.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나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예수 믿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혀간다고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왜 잡혀가는지는 몰랐지만 모두들 그 사실을 두려워 했기에 나는 그 친구도 당연히 두려워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나더러 주일 집회에 나와 볼 것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어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법이다. 주일날 그 친구가 집 밖에서 교회 가자고 부르러 왔는데 그때는 동생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온 가족이 찾다가 찾질 못해서 우리는 계속 동생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난 오늘은 갈 수 없게 됐어" 하고 대답했다. 그때 못 가게 되자 후에 교회 가자고 했어도 가지 않게 되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경험은 내게 있어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한밤중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옆치락뒤치락하다가 잠을 들 수가 없어서 나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었다. 내가 드디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힘이 "네 스스로 죄를 범했지 않느냐. 만약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하고 말씀하며 내가 죄를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것 같았다.

이것은 완전히 주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었다. 내가 이때 주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자기를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내버렸기에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나는 계속 꿇어앉아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 주세요." 이때 내 마음속에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솟아나왔다. 그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나 마음은 아주 즐거워서 더이상 무릎을 꿇지 않고 일어나 기쁘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때 나는 내가 이미 거둬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는 교회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집회가 없었고 몇 분 노인들만이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나는 사실 한차례 밖에 나가 보았지만 참아낼 수가 없어 곧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본래 주님을 위한 것이면 마음이 즐거워야 할텐데 나는 오히려 즐겁지가 않았다.

주님께서 나를 거듭 재촉하셨지만 나의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되든 나가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간섭하시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병이 나셨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흥정하듯 “제 일과 아버지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니 그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는 상관이 없으니 주님,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시고 고쳐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를 찾으십시오”하고 기도드렸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진짜 내게 오셔서 나를 간섭하셨는데 내 눈이 아무 까닭없이 볼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바로 내 코 앞에 와도 도무지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병원엘 데리고 가려고 하셨지만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았으므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집안일이 바빠서 전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 아무 것도 모르고 또 글자도 볼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나가봤자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내가 주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면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구했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주님 제가 나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이때 주님께서 내게 “나는 네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번은 형제자매들이 내게 교회의 사경회에 가자고 했다. 그들이 성경을 찾을 때, 나도 성경을 책상 위에 놔둘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들이 찾아 읽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이라는 어렵풋한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 집에 돌아온 후 성경을 넘겨 그 곳을 찾아 대충 머릿속으로 그린 것을 토대로 읽어내려 갔는데 틀릴까봐 겁나서 나는 주님께 “틀리게 읽더라도 아무튼 저의 죄를 기억지 말아주십시오”하고 기도했다. 얼마 후 동생이 학교 갔다 왔다. 내가 동생에게 읽어주었더니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아주 놀라워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단다”하고 말했다. 나는 겨우 그때부터서야 천천히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후 한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일하면서 지났는데 눈이 점점 똑똑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렇지만 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저희 집에는 일이 있어서 사실 나갈 수가 없고 또 나가서 성도들을 본 지도 벌써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제집에 오게 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이 기도를 드린 3일째 되는 날 밤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찾아왔다.

-십자가 군병으로 나서다-

그들이 우리 집에서 이틀을 묵은 후에 떠나려 하면서 내게 같이 가자고 청했지만 나는 거절했

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격다짐으로 내게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찌 바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어쩔 도리 없이 그들을 따라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 것도 지니지 않고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막 집문을 나서 길을 가는데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 아주 멀리 있는 물건도 모두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2개월 동안이나 물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더욱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신 일임을 확신케 되었다.

-사역지에서 주를 섬기다-

나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으나 사역지로 보냄을 받았다. 내가 보냄을 받은 곳에는 이미 3자교회가 있었다. 사역지에 막 도착해서는 나는 여전히 설교를 감히 하지 못했고 다만 기도 가운데 부탁할 뿐이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재촉하시며 격려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무척 두려웠다. 그것은 3자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믿은 후에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무슨 일을 해도 다 된다고 말했으며 또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고 주 예수여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에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곧 주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었다.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일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거듭나 구원 얻는 일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구원 얻은 후에는 더이상 3자교회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다.

이 밖에도 어떤 일들이 생겨서 참그리스도인들이 더이상 3자교회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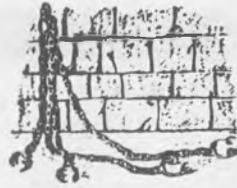
게 되었다.

내가 접촉한 3자교회는 헌금들이 꽤 많았는데 이렇게 바쳐진 헌금들이 어떻게 쓰였던가? 당시 내가 살펴본 바로는 교회의 어떤 책임자들이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들이고 하는 등에 썼다. 성도들이 주님께 바친 헌금인데 이 사람들이 가져다 사적으로 써버리니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해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에 받아들여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또 큰 갈등이 있었다. 마음에는 어떤 힘이 내게 이 사실을 말하도록 재촉하셨으나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 두려웠으므로 감히 그렇게 하질 못했다. 나는 여러 번 주님께 기도했으나 마음에는 여전히 나가서 말하라고 하시는 감동이 있었다. 나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을 이겨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말했다. 이때 성령께서도 크게 일하셔서 내가 말을 끝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3자교회를 떠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런 형편을 정부에게 가서 신고하면서 어떤 계집아이 하나가 와서 설교를 하더니 사람들을 다 끄집어갔습니다 하고 말했다.

-공안국에 체포당하여 갈히다-

어떤 사람이 공안국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와서 우리를 잡으려 했다. 항상 우리를 뒤쫓았지만 끝내 잡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한다. 그러나 어느때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꾼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신다. 어떤 집회에서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데 공안원들이 갑자기 들어닥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위하고 말았다. 결국 밖에 서있던 성도들과 함께 모두 현의 공안국에 체포되어 갔다. 현지 성도들은 심문을 받은 뒤 석방되었고 내가 구류당한 시간도 길지 않아서 3달밖에 있지



않았다.

사실 이번 '사고'는 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었다. 이치로 따지면 공안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니 내가 웅당 두려워해야 할 일이었지만 심문당하는 그날에는 오히려 두려움을 몰랐고 또 어떻게 공안원의 심문에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다. 주님께 "공안원이 제게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시는 대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튿날도 심문했는데 내게 많은 일을 물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또 왜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먼 곳까지 도망왔느냐고 물기에 나는 놀러 왔으며 다른 일은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성도들도 모두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처리원칙에 따르면 심문을 계속해야 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연락해서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고 나를 교회사에 보내셨다. 그러나 내가 조건에 맞지 않았으므로 교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나를 또 구치소에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구치소에 3개월 갇혀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가 1987년으로 내가 제일 처음 공안국에 체포된 때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받다.-

제일 처음 체포된 후 3개월만에 석방되었지만 그 후 2년여 동안 서너 차례나 잡혀들어갔다. 이런 과정중에 공안원들의 온갖 능멸을 받게 됨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들이 나를 다루는 방법은 막 땅을 쓸고 난 빗자루로 내 얼굴을 쓸어 땅 위의 먼지와 쓰레기 가래침 등을 온통 내 얼굴에 묻히고, 참기 어려운 말로 나를 모욕하고 모멸하여 어찌됐든 나를 괴롭혀 죄를 불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어찌 주를 팔며 교회와 형제자

매를 팔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매번 고통을 참으면서 모른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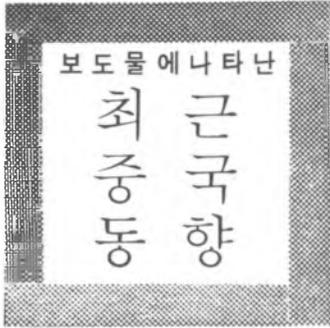
한번은 내가 공안국에 체포되어 갔을 때 내가 여전히 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니 나를 2,3층짜리 건물의 다락방에다가 나를 가두어 버렸다. 거기는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태양이 내리 쬐어 마치 뜨거운 여름날 같았다. 방에는 덮어 쓸 만한 물건이 아무 것도 없었다. 온종일 맹렬한 태양에 쬐이게 되면 눈동자조차 빨갛게 되어서 거의 장님이 되게 된다. 게다가 조금 더 지나면 생명도 잃게 되는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기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곧 일어나 방 가운데 전기가 통하는 전기선 한 가닥(일반적인 가는 전선)을 절단하였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적적으로 나는 전기에 감전되지 않았다. 나는 전선을 붙잡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다시 건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도망쳤다.

2년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내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앞에 놓인 주님을 섬기는 길을 생각해보니 연락해져서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집에 돌아와 쉬게 되었다.

교회는 내가 입은 상처를 너그러이 이해하고 나의 형편을 고려해서 나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재봉을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 복음전도자들의 옷 만드는 일을 돕게 하고 또 인쇄제본 등의 문서사역을 돕도록 해주었다.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 ■

「中國與教會」 87기(92.1.2)中 에서



사 회

중국인민해방군은 軍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군에게 일제히 넥타이를 매도록 지시했다. 서방 소식통들은 지난해 결프전때 서방군대가 고도의 전문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일보 92.4.1)

工人日報는 중국각지에서 여자전화교환원, 간호사, 호텔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음란전화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매춘부들이 손님을 유혹하기 위해 음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민일보 92.4.1)

뉴스위크誌에 따르면 중국 四川省에서는 매년 약 1만명씩의 여자와 어린이가 납치돼 태국북부로 팔려가 매춘부로 이용되고 있고 광둥성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를 위한 부녀 유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피해자들은 용도 연령 및 자질에 따라 최고 5천원(약 69만원)에 농촌 총각에게 팔린다고 한다. (국민일보 92.4.4)

지난해 중국경제는 7.4%가 성장했는데 소비상품 구매총액은 13.2% 증가했다고 력키경제연구소가 분석. (동아일보 92.4.4)

「홍태양」은 중국음반총공사 上海지사가 작년 12월 18일 내놓은 음반제목으로 이 음반에는 「태양이 가장 붉고 毛주석이 가장 친하다」, 「붉은 태양이 변방에 비치다」 등 文化革命기간 중 많이 불리던 모택동개인을 찬양하는 노래 10곡이 실려 있다. 「홍태양-새로운 리듬으로 부른 모택동 송가 등」이란 표제가 붙은 이 음반은 인기음반으로 급부상, 3월말 현재 上海에서만 30만장을 비롯 전국적으로 2백 40만장의 레코드가 팔렸다.

(동아일보 92.4.17)

농민인구 9억 명중 약 1억 9천 6백만명이(5명중 1명)이 전깃불이 들어 오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으며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이 新疆, 寧夏, 甘肅, 四川, 安徽, 雲南 등지의 가난한 내륙지방이라고 貴州省에서 발행되는 「다이제스트 뉴스」가 천연.

(국민일보 92.4.24)

정 치

‘태자당’이라는 별명의 소수 집단은 중국최고 지도자들의 아들과 딸들이다. 그들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홍콩에서 파티를 즐긴다. 일본에서는 미술품을, 중동에서는 무기를 판다. 그들은 미국에서 공부했으며 본국의 돈을 해외로 빼내고 중국 최고 권력자들에게 귀속 말을 건넨다. 나이먹은 그들의 아버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는 지금 그들은 세계 최후 공산대국의 권력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버지 지도자들과 태자당 사이에는 명백한 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태자당의 당원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노선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고 교육수준이 높은 철두철미 현실주의자들이며 보수적인 아버지보다 다양한 견해에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많은 수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강력한 보수파인 陳雲의 아들 陳元(47)은 「공산당은 선전공세와 지속적인 정치학습에 대한 의존을 포기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그같은 방식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급진개혁파들을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92.3.17)

「1등국민은 공복이로세, 자자 손손 복누리네. 2등국민은 買辦이로세, 양년끼고 놀아나네. 3등국민은 부패관리, 먹고 마실 걱정없네. 4등국민은 개인업자, 세금포탈로 치부하네. 5등국민은 배우로세, 엉덩이 흔들어 돈 번다네. 등외국민은 백성이로세, 雷鋒배워 혁명하네.」

최근 중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公民歌」라는 民謠의 일부이다. 최고실력자 鄧小平의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풍속도를 해학적이고도 신랄하게 비꼬는 내용의 민요이다.

고대의 史書들이 전하는 「가야금줄처럼 끈다간 길가에 죽어 가고, 갈고리처럼 굽어야 封侯가 된다네.」, 「楚王이 가는 허리 좋아하니, 궁중이 절반은 굶어죽네.」 등과 같은 민요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중국 민중의 끈질긴 저항정신의 표현이다.

이같은 민요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개방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80년대 부터이며 언론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된 것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그 내용은 대체로 개혁

정책이 낳은 이익분화 현상과 사회계층간의 심리적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혁명간부들의 한탄을 담은 다음과 같은 민요가 대표적인 예이다. 「땅부자는 우쭐대고, 지식인은 오만하네. 工農은 맥빠지고, 간부는 원통하네. 마르크레닌주의 빛을 잃고, 사회주의 방향없네. 당의 지도 무력하고, 無產獨재 대상없네.」

80년대 중반 농민의 애환을 그린 다음과 같은 민요도 있다. 「자가용 타는 사람은 胡耀邦보다 월급 많네. 큰 길가 높은 담장집 趙紫陽보다 더 잘 버네. 공산당은 태양같이 멀리멀리 비추는데, 당 정책은 달과 같이 날로날로 달라지네.」

출퇴근하는 일반 서민의 푸념을 담은 예를 소개하면 「沿海사람 살판나고, 가게주인 부자되고, 부패관리 술취하되, 월급쟁이 괴롭구나. 工農兵學商 모두들 장사로 나서니 당중앙 거침없이 물가만 올리네. 毛선생의 나쁜 시절엔 1원이 10錢이라네.」

최근 관리들의 부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나타난 민요로는 「그대가 옳다면 옳고, 그른

것도 옳다네. 그대가 그르다면 그르고, 옳은 것도 그르다네. 일 잘하는 것이 말잘하는 것만 못하고, 말잘하는 것이 뇌물 잘 쓰는 것만 못하다네.」

퇴폐적인 사회기풍을 개탄하는 민요도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은 組閣에 바쁘고, 省市는 출국에 바쁘고, 縣級은 먹고 마시기에 바쁘고, 대중은 도박에 바쁘구나.」 각 지방에 떠돌아다니는 민요는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풍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北京인들의 정치적 풍자는 특히 신랄하기로 유명하다. 「자유는 줄 수 없고, 민주는 키울 수 없고, 정부는 욕할 수 없고, 鄧은 끌어내릴 수 없네.」

이처럼 중국의 민요들은 한번 웃고 지나칠 우스개로 치부하기에는 실로 그 내용이 진실 그대로임을 발견하게 된다. (경향일보 92.4.20)

人民日報는 4월 14일 1면에 鄧의 시장경제개혁 가속화 운동을 찬양하면서도 「부르조아 자유주의」의 위협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는 國務院 대변인 袁木이 쓴 기사를 게재했다. 袁木은 「우리는 부르조아 자유주의를 방어하고 이것이 고개를 치켜들 때에 대비 한시도 방심하거나 만연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르조아 자유주의」라는 말은 중국체제가 자본주의로 변하는 것은 곧 서방의 정권전복음모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임을 걱정하는 정통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고 구호였다.

(국민일보 92.4.15)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는 개혁과 경제학자 方生의 사설에서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민일보 92.4.21)

新華社통신은 올 상반기중 한국을 포함 일본 미얀마 등 3개국과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고 광동성, 사천성, 복건성, 협서성을 연결하는 4개 국제노선을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92.3.17, 중앙일보 92.3.17)

4월7일 개막된 중국 국제농업신기술박람회에 「大韓民國」의 정식국명과 함께 한국국기가 게양된 한국전시관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중국당국은 처음 공식으로 사용을 허가했다.

(국민일보 92.4.8)

총사업규모 3억달러로 北京시와 독일항공사 루프트 한자가 합작 파트너로 참여, (주)대우가 국내 대표주주 회사로 25%지분을 갖고 운영에 참가하도록 최종투자 허가를 받고 국내처음으로 중국 종합개발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 비즈니스 센터는 연면적 4만 6천평에 5백 40실 특급호텔 아파트 1백 61가구 사무실 1백 8개 백화점, 상가, 스포츠편의시설들을 갖추고 6월에 호텔을 비롯한 일부시설을 개관하고 9월에전관을 열 예정이다.

(조선일보 92.4.16)

伍紹祖 중국체육운동위원회 주임(장관급)이 李鎮三 체육청 소년부장관 초청으로 4월 26일에서 5월 2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중국의 각료급인사가 국제회의 참석이 아닌 쌍무적인 관계로 방한하기는 처음이다.

(국민일보 92.4.25, 중앙일보 92.4.9)

재무부는 13일 中國銀行의 서울사무소설립을 허용하고 외무부를 통해 중국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 최근 중국정부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의 北京사무소 설치인가신청에 대해 사실상 내인가를 의미하는 정식인가 신청서양식을 보냈고 이를 외교경로로 우리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중국은행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 92.4.14)

韓中양국관계는 지난 2,3년동안 「결혼식만 남겨놓은 사실혼 관계」라는 비유처럼 인적, 물적 교류면에서 수교나 다름없는 상태로 급속히 진전돼 왔지만 정작 수교논의 자체는 답보상태에 있었다. 제48차 亞太경제사회이사회(ESCAP)총회 참석차 북경을 방문한 李相玉외무장관이 錢其琛외교부장, 李鵬총리 등 중국고위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 양국관계정상화문제를 공론함으로써 한중수교협상은 加速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아일보 92.4.14)

金日成 북한주석의 생일을 맞아 중국은 陽尙昆 국가주석을 북한에 파견했으나 수행관리의 수준격하는 물론 김주석의 후계자인 김정일 서기가 수회회담에 불참하는 등 표면상의 우호선전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분출. 양국관계가 전환점에 있음을 시사. (조선일보 92.4.16)

흑룡강성에 있는 三江平原의 자원과 농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三江平原農業綜合開發有限公司가 17일 하얼빈에서 정식 발족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 大公報가 보도했다. 50대 50의 자본투자로 인민폐 2억 2천 7백만원의 자본금을 조성하여 출범한 이 합작회사는 총 3만 3백 ha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연간 1억 5백만 kg의 콩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경향일보 92.4.19, 국민일보 92.4.18)

중국의 楊尙昆 국가주석은 4월 13일부터 5일간 계속된 북한 방문기간중 金日成주석에게 韓中수교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임을 통보했다고 홍콩의 親中國계신문인 新晚報와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92.4.20, 국민일보 92.4.17)



## 경 제



중국 최고 실권자인 鄧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라는 촉구에 따라 천안문사태이후 89년 9월 사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企業整理小組를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文匯報가 3월 17일 발표했다.

(조선일보 92.3.18, 국민일보 92.3.18)

홍콩의 明報는 4월 26일 중국국가경제개혁위원회 부주임 高尚全의 말을 인용 중국은 반드시 개혁해 나갈 것이나 서방식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 수는 없으며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제도 중국식 완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92.4.27)

## 종 교

금년 1월초 상해시 서기 오방국은 상해시에 50만 명의 기독교, 카톨릭신자 및 추종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5만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神佛을 드리는 사람은 더 많아 1백 50만명에 이른다고 하면서 현재 공산당원이 90만도 채 못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92년 1월 28일 중국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14명의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인민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세계관 교육을 잘 진행하라」고 언급해 공산주의 무신론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지시는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강화」라며 「증가와 성장이 아닌 제한과 관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92.3.27, 크리스찬신문 92.3.28)

중국 정부는 최근 동구국가들의 붕괴가 종교단체들의 선교 및 배후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가정예배 처소를 단속하는 한편 금년 1월부터 교회실태를 집중조사 단속하고 있다. 문화부가 3월13일자 각 교단과 선교단체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종교인들의 중국여행시 중국내 교포접촉 및 선교활동에 따른 중국정부의 거부감과 이로 인해 양국간의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행사적 성격의 중국방문 및 선교활동의 자제를 요청했다. 애덕인쇄소에서 연간 2백만부 이상 발행할 수 있는 성서를 앞으로 5년간 50만부 이상은 인쇄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다.

(기독교보 92.3.28, 크리스찬신문 92.3.28, 기독교연합신문 92.3.29)

중국 선전부와 조직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호교목'은 공산당과 종교부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들어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첫째, 당 기층조직 기구는 갈수록 분산되고 조직생활과 정치학습도 형식화될 뿐 아니라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와 천주교 등의 예배와 神佛승배는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마르크스·레닌·모택동 주석의 저작들은 소수민족 문자로 판본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최소한 동소평, 진운의 책은 아직 소수민족 문자로 번역도 안되었다. 반면 성경은 이미 10여개 소수민족 문자로 판본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셋째, 공산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일정하지 않고 부족한 데 반해 교회와 사찰 등

의 헌금과 신분에 필요한 돈은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다며 공산주의 신봉자의 감소에 비한 신앙자들의 증가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연합신문 92. 3. 29)

중국을 방문한 UBS(연합성서공회)번역자문위원이며 아시아 담당책임자인 로이진 박사는 만주지역에서 교회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는 활기에 차 있고 조선족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어떤 교회에서는 조선어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흑룡강성내에는 25만명 가량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중 7천명 가량이 조선족이며 57개교회, 2백여 가정예배소, 16명의 목사, 18명의 교회학교교사, 250여명의 자원봉사자, 목회자 16명중 2명이 여성이며 2명이 조선족이라고 밝혔다.

(복음신문 92. 4. 5, 기독교연합신문 92. 3. 29)

강택민 총서기는 2월 28일 북경에서 중국기독교협회의 장 K.팀 주교, 총무 셴 이팡 주교, 삼자애국운동 전국협의회 총무 루오 구완중 등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이고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천명하고 「종교가 발전된 지역에서는 더욱 후원하며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의식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공보 92. 4. 18, 한국교회신문 92.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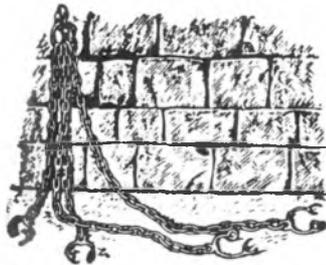
중국의 전국적인 기독교잡지인 '티엔 평'은 최근호에서 해남성의 종교국 간부들이 무신론 선전물을 만들어 교회지도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학습토록한 사실을 폭로했다. '티엔 평'은 지난 수년간 종교정책에 대한 위반행위를 여러차례에 걸쳐 폭로했으며 제5차 전 중국기독교협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989-91년 사이에 발생한 5백여건의 위반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교회신문 92. 4. 19)

廣州 시내 외국인 선교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중국경찰 30명이 불시가택수색을 벌여 성경책3천권을 압수하고 외국인선교사에 대해서도 4시간동안 심문한 뒤 풀어줬다.

(국민일보 92. 4. 21)

중국 난징의 아미티 출판사는 1987년 12월 가동된 후 지금까지 400만권에 달하는 성경을 출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교회협의회가 1980년 이래 보급한 성경책은 도합 6백만권에 달하였다.

(기독교연합신문 92. 4. 26, 크리스찬 92. 4. 19)



현대중국교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王明道 목사가 지난해 7월 별세한 이후 그와 함께 신앙여정을 함께 해 온 부인 劉景文(드보라왕)여사가 지난 18일 상해의 한 병원에서 숙환인 천식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 그리스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왕목사 부부는 시대적 격동기에 나서 청나라와 중화민국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복음전도의 사명을 굳건히 지킨 신앙위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도 5월 1일로 예정된 드보라왕 여사의 장례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들 것을 예상,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왕목사 부부의 신앙관과 굳건한 믿음의 자세가 중국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평생 복음을 위해 공산당의 온갖 유희와 탄압속에서도 곳곳이 한길만 택해 걸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정교회의 상징적 인물로 알려진 임헌고 목사는 “왕목사는 근세기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세우시고 귀히 쓰신 분”이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하고 일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을 다했으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인자하고 매우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왕목사 부부는 삼자혁신운동이 일어날 때 이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5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58년 다시 붙잡혀 21년여 동안 옥고를 치른후 드보라왕 여사는 77년, 왕 목사는 79년에 각각 석방돼 상해에

정착했다. 지난 90년 중국을 방문할 당시 왕목사를 만나고 돌아온 한성중화 기독교회 유전명목사는 “송상철, 워치만니, 가옥명 목사 등과 함께 현대 중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지도자였다”면서 “왕목사는 신도의 생활과 주님과과의 교제를 중시했던 영적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왕목사는 22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활발한 저작활동을 벌였는데 「五十年來」, 「이사람을 보라」(看這些人), 「청년에게 주는 12편의 편지」(寫給青年的十二封信) 등은 중국의 기독교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저작들로 남아 있다.

특히 그가 계간지인 영식(靈食)을 통해 당시 현대파(現代派, 그는 불신파라고 했다)와 지면으로 논쟁하고 삼자교회를 비난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한 일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국민일보 92. 4. 23)



## 외신 보도에서

### 선교사가 중국의 종교탄압에 항의함

영국의 Eddie Karnes라는 선교사는 중국지도층에게 성탄카드보내기 운동 및 중국에서 제작한 성탄장식 보이콧운동을 발기하였다. 이 운동은 중국지도층의 종교탄압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Eddie Karnes는 워싱턴 “Christian missionary agency World Harvesters Inc”의 책임자이다. 그는 중국정부가 광둥성에서 성탄축하 활동을 금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곧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는 또 미국대통령 부시와 저명한 부흥사 빌리 그 레이엄목사에게 편지를 띄워 그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홍보에 도움을 주도록 요청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1. 11. 19)

### 가정교회 전도자 체포당함

작년 9월중에 일반 공안원이 권총과 전자봉을 들고 절강성 동면의 한 가정교회에 몰려왔는데 마침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공안원이 도착한 후 하늘을 향해 공포를 쏘고 아울러 집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도인을 때렸으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온주공안국의 유치장에 데리고 갔다. 며칠 후 현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안국앞에 모여 공안국의 침입과 전도자 체포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온주공안국은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공안국에서 가정교회집회를 관여하는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News Network International” 1991. 11. 8)

### 당국은 신강성 종교계인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관방의 《新疆日報》는 회교도들이 살고 있는 신강지역에 대해서 당국은 이미 종교인사에 대한 숙청을 하였으며 현지 관원은 각종방법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원칙을 전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현지의 정부는 분리주의자를 혼란한다고 지적된 사립학교와 개인이 설립한 수많은 코란 경전학교 및 이슬람교 지도자양성학교를 규제하고 정리 및 해산을 단행했다. 이밖에도

약 25,000명의 성직자는 당 관리의 심사를 받음으로써 정치상에 있어서 당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거의 10%에 달하는 성직자는 당국이 정한 정치와 종교표준에 미달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도는 또 심사에 합격한 종교인이라야 비로소 국가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星島日報》1991.11.25)

#### 전국양회회의가 북경에서 거행됨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제5회상무위원회가 북경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여한 250명의 대표는 심덕용(沈德裕)대표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심은 현재 중국기독교의 신도수가 5백만명에 달하고 예배당은 7,000여 곳에 달하며 집회소는 2만여 곳이라고 보고했다. 금후의 방침은 장차 이 회가 교회인재양성을 강화하고 각 지점의 건설을 강화하며 아울러 해외인사와의 교류에 힘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회의는 75세가 된 정광훈 주교를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주석과 중국기독교협회제3회상무위원회회장으로 선출하였다. (《文匯報》1992.1.1:7)

#### 기독교방문단이 북경을 방문함

홍콩의 기독교인사들이 11월 중순에 북경에서 중국국무원종교사무국국장 임무지를 회견하였다. 이들은 의견서를 발표하여 특별히 중국정부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구체적인 집행을 촉구하고 비폭력수단으로 민주를 쟁취하려는 인사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공평하게 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단원들은 또 종교사무국에 대해 홍콩 기독교회가 대륙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97년 이후의 종교자유개방 태도 및 조치가 각 성시에서 더욱 충분히 관철되고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종교사무국장은 방문단을 접견하고 종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며 97년후에 국무원 종교사무국이 홍콩의 종교사무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의 종교조직도 역시 홍콩교회의 사무를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방문단은 중국기독교협회회장 정광훈 주교와 현재의 중국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장래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明報》1991.12.18: 《星島日報》1991.11.26: 1.12)

성탄축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광둥성정부가 명령을 내려 성탄절의 경축활동을 제한했지만 이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의 호텔과 음식점은 성탄절야에 모두 장식하고 성탄케익을 팔았으며 성탄음식을 제공하는 등, 광둥시민과 홍콩에서 온 방문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벌였다. 이밖에 광둥이외의 지방에서도 정부가 성탄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는 소식이 있다. 예를 들어 북경에서는 당국이 교통혼잡을 이유로 성탄이브의 자정미사를 6시반에 드리게 했다. 북경에서는 성탄이브에 22개 천주교회와 기독교회당이 경축행사를 거행되었는데 한 소식통은 5~6만인이 참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해는 당국이 성탄과 관련된 뉴스보도를 허용치 않았으나 사람들은 보통때처럼 무도회에 참가하였다. (《明報》1991.12.20: 《星島日報》1991.12.24: 1.3)

#### 지하교회주교의 사망

중국하북성 보정교구 지하교회 사순결보리(史純潔輔理)주교가 1991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당시 한 양노원에서 공안원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심장병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많은 소식통은 맞아 죽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반드시 그가 죽은 후 이틀만에 치르도록 명령하여 소식이 보정 및 인근 지방에 전해진 후 큰 인원이 몰려드는 것을 피하려 했으나, 결과는 일천여명이 와서 사주교의 장례에 참가하였다.

이밖에도 바티칸의 방송국보도에 따르면 교황의 허가를 얻지 않은 주교직 맡는 것을 거절하다가 21년간을 체포당한 산서성의 한정피(韓廷皮)주교는 이미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 한주교는 수년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차례 심장병이 발작을 하였으나 방송국에서는 그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公教報》1992.1.10: 《星島日報》1992.1.4)



#### 중공은 하북(河北)주교의 체포소식을 부인함

法新社는 로마교황청이 임명한 하북 창주(滄州)지역의 주교 이진영(李振榮)이 1991년 12월 10일 천진에서 당국에 의해 체포당했으며 같이 체포된 사람으로 한 쌍의 외과의사 부부와 신학원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이 발표된 후 《文匯報》는 이 보도는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이진영 주교가 수술받을 기간에 체포된 것을 부인하였으며 또 그에게 수술을 해 준 외과의사와 아내도 함께 체포되었음을 부인하였다. 《文匯報》는 현재 72세인 이진영 주교는 작년 11월 22일에 위암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입원해서 요양중이며 그의 체포와 관련된 소식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星島日報》 1991.12.24: 《文匯報》 1992.1.1)

#### 북건성의 종교정책 실시

《文匯報》의 보도에 따르면 북건성에서는 종교정책의 전면적인 실시가 현저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 성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와 이슬람교 등 5대 종교의 수십만 신도들이 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성에는 800여 곳의 기독교회당과 1,200곳의 불교사원, 4곳의 청진사 및 많은 도교사원 등이 있다. 이 성의 각 종교단체는 전후로 북건신학원, 북건불학원, 천주교 남녀 수도원 등을 세웠다. 또 최근 몇년간 대외교류도 날이 증가하고 있다. (《文匯報》 1992.1.8)

#### 미신풍습이 다시 유행함

관상을 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하는 미신풍속이 현재 중국대륙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다.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늙은이에 한정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미신에 빠졌으며 농촌에서 유행할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유행하여 만연하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 호남성 모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사주를 믿고 점을 본 사람중에는 36%가 중공성립이후에 출생한 40미만의 사람으로 39%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현상은 당국의 주의를 끌게되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서방침투의 문제"로 보고 단속을 전개하였다. (《星島日報》 1991.12.10)

#### 상해출판사에서 대만신학총서를 출판함

한 신부는 상해교구의 출판사가 원래 대만에서 쓰여진 한 질의 신학총서의 첫 세 권을 인쇄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 세 권의 서적은 《聖母論》, 《神學導論》, 《望德論·愛德論》이다. 이 세 권의 신학 총서는 원래 台北의 광계(光啓)출판사가 펴낸 모두 36권으로 된 신학 총서의 일부 분이다. 이 신부는 또 이 신학총서 중에 제26권을 상해인근의 칠보(七寶)교구의 인쇄공장에서 인쇄하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위임한 상해 교구의 김노현(金魯賢) 주교는 중국의 2천명의 신부와 수녀에게 총서 한질씩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公教報》 1992.1.3)

#### 대마참 교회가 경고를 무시함

광동성관원이 대마참교회를 폐쇄하라고 다시 한 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책임자 임헌고(林獻羔)는 경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대마참교회의 문을 닫게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결코 법률제도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또 6·4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발표한 인권백서에도 가정교회는 합법적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라는 주장을 견지했다.

대마참교회는 작년 9월 공안원들의 돌연한 조사를 받았으며 임헌고가 공안국에 끌려가서 21시간 이상을 조사당했다. 당국은 그가 삼자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아울러 외국의 간첩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헌고 자신은 국가기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간첩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임헌고를 규제할 아무 증거를 대지 못하자 그들은 대마참교회의 신도명부를 압수하여 집집마다 찾아가 그들이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또 그들의 고용주에게 신앙인에게는 보너스를 나눠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대마참교회의 집회에 참가한 신도수는 이로 인하여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되어 9백명에서 천백명으로 증가하였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1.12.31)

당국은 학생들의 종교활동 참가를 금지함

중국 陝西성 한 지방의 中小學校는 교회당의 기도집회 참가를 금지하였다. 통원(通遠)嶺 위원회와 이 현의 인민정부는 현지가장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방학중에 종교활동이나 미신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지 않거나 종교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진학시험을 볼 때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장차 훌륭한 학생이나 모

범반간부에 뽑힐 수 없다고 밝혔다. 편지는 가장과 학교가 긴밀히 협조하여 젊은 세대가 학습에 전념하도록 교육하고 아울러 그들을 사회주의 사회의 믿음만한 계승자로 양성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믿음만한 소식통은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천주교학생들로 하여금 불평등한 처우를 당하게 하고 그들의 기본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公教報》 1992.1.10)

## 종교국이 「6호문건」을 실시하다

잡지에서

작년 2월초 중국 중앙국무원이 <진일보한 종교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국무원의 통지>를 반포한 후 금년초 중국종교사무국은 전국 각지에 「6호문건」의 종교신앙에 관한 조문부분의 하달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2월말 복건현 1급 종교사무국은 한 삼자교회에서 「6호문건」의 92년도 업무계획과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 개최하였는데 정부당국의 간부가 직접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석상에서 아래 몇 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하였다.

(1)신도가 애국 애교할 것. (2)각 교파가 연합할 것. (3)호합파를 배척할 것. (4)국외세력 침투를 방지하고 신도가 밖에서 들여온 비디오 테이프나 서적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할 것.

「6호문건」의 실시에 의하여 당국은 각 가정교회와 전도여행자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가하고 있다. 안휘성의 형세는 특별히 긴장국면에 있는데 집회, 전도활동을 모두 간섭받고 있다. 음력 새해 전에 어떤 가정교회의 세 형제가 잡혀갔으며 1월 9일에는 한 여전도자가 체포되어 아직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는데 전해진 바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체포되어 공안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한편 하남성의 상황 역시 상당한 긴장 국면에 처해 있다. 일찍이 작년 10월부터 12월에 이르는 동안 공안원들이 이미 곳곳에서 신자들을 잡아들였으며 신도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신도들의 집회를 틈타 집회장소를 급습하여 모든 성경, 서

적과 녹음테이프를 수색하고 많은 신자들을 끌고 갔다. 잡혀간 신자들 중 20여 명은 교회의 책임자이며 잡혀간 뒤에는 일반적으로 3 내지 4주에 걸쳐 구류된 후 벌금을 물고서야 석방될 수 있다.

공안국은 또 신자에게 다시는 해외 전도자와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집에 공안원을 파견해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공안부대가 밤 12시에 한 전도자의 집을 포위해서 4시간 동안이나 집을 수색하여 모든 성경, 영적인 서적, 녹음테이프, 카메라 및 신자 명부를 색출해 내고 다시 공안국에 끌고가 구류했으며 또 이 기간중 어떤 외국 전도자가 호텔에서 체포당해 7일 동안 구금되었으며 공안원이 그에게 공안국은 이미 외국전도자들의 중국 교회에서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구금 후에 공안원들이 이 전도자를 비행장까지 데리고가 그를 국경 밖으로 축출해 버리면서 5년 내에는 다시는 중국에 돌아올 수 없다고 강제명령을 했다.

비록 형세가 이처럼 긴장스러운 국면이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개 소그룹형식의 모임을 갖고 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일꾼들이 묶어버려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는 듯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매이지 않아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허다한 가정교회들이 있어 농한기를 이용해 사역자 훈련반과 심령부흥회를 개최하고 있다.

(莫忘神州 92.3)

## 미신대장이 주께 돌아오다

주 예수께서는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맹렬하게 반대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날도 주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부르시어 사용하신다.

북건의 어느 어촌에 미신을 극진히 섬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귀를 위해 심부름꾼 노릇을 10여 년이나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미신대장」이라고 여겼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인을 어찌다 보게 되면 큰 소리로 그들을 욕하고 입에 물을 머금었다가 그들에게 뱉기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 「미신대장」이 한바탕 큰 병을 치루게 하시므로 그를 주께 돌아오도록 하셨다.

마귀도 이 병을 이용해서 그의 아내와 그 남편에게 마귀의 종을 부인으로 들이라고 꼬드겼다. 다행이도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병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였다.

이 형제가 주님을 믿고 난 후 참으로 많이 변화했다. 그는 더이상 신자들을 핍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께 이끌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마음이 떠들석했다. 예전에 그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미신적인 일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구원얻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 일은 복음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서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며 어떠한 세력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널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莫忘神州 92.3)



## 中国선교도서 안내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3,000원  
(전문인협력기구)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3,500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3. 중국선교핸드북(두란노 서원) 4,800원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1,000원
5. 중국어성경번역소사 1,000원

## 中国교재 안내

1. 中國語 聖經 7,000원  
(신약+ 시편+ 잠언: 주음부호)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1,000원
3. 經文背誦 1,500원  
經文背誦 Tape 1,000원
4. 睡夢鄉 1,000원  
睡夢鄉 Tape 1,000원
5. 飛行屋 1,000원  
飛行屋 Tape 1,000원
6. 初級中國語 I 2,000원  
初級中國語 I Tape(10개) 6,000원
7. 初級中國語 II 2,100원  
初級中國語 II Tape(10개) 6,000원
8. 中國文化二十講 5,000원  
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1,500원
9.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我的第一本聖經 Tape 1,000원
10. 예수讚美(중국어 찬양집) 3,000원
11.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10,000원
12. 信仰讀本(Good News Leader) 5,000원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533-5497)

중 국 선 교 참 고 도 서

「중국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과  
「중국교회의 실상」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선교회의 김영국 장로가 번역한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두 권의 책은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문서사역 특히 '성경전달 사역'의 필요성과 서방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될 《중공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과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삼자교회의 실상을 깊이있게 살펴볼 수 있는 《중공교회의 실상》이라는 책이다.

먼저 《중공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은 OPEN DOORS선교회의 귀한 동역자 데이빗형제가 쓴 책이다. OPEN DOORS는 '열린 문'이라는 의미로 홀랜드(화란인이 좋아하는 자신들의 국호로 네덜란드라는 명칭은 육지의 고도가 바다보다 낮다는 의미라서 화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의 앤드류 총재가 만든 선교회로 한국에도 지부가 있었는데 현재는 "생명의강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이들은 창의적 접근지역(Creative Access Area: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의 하나인 중국의 몇몇 성(省)에 성경을 전달하였다. 역시 같은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회로는 한국에서 성경전달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모퉁이돌선교회(Corner Stone)가 있는데 모퉁이돌 선교회는 CIS(구 소련이 해체되고 난 후 생겨난 독립국연합)와 중국, 북한, 몽고, 이스라엘, 회교권 등에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중공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을 쓴 데이빗형제는 이 책에서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불신자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함을 입어 중국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죽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던 70년대초부터 폐쇄된 체제하의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던중 1981년에는 한꺼번에 100만권의 성경을 전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1981년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진주작전'이라고 명명된 작전을 통해서 100

사역자들이 꼭  
읽어야 할 추천도서

- |                     |                    |         |
|---------------------|--------------------|---------|
| 〈중공교회의 실상〉          | 싸일러스 장 著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
| 〈중공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 CCL 編 HOPE 驛       | 전문인협력기구 |
| 〈중국선교〉              | 데이빗 에드니 著 김묘경 譯    | IVP     |
| 〈社會主義 中國에서의 教會와 國家〉 | 조나단 차오 著 中國語文宣教會 譯 |         |
|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       | 일본크리스찬신문사 編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
| 〈中共宣敎의 문이 열리다〉      | 폴 카프만 著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
| 〈붉은 대륙의 새벽〉         | 싸일러스 홍 著 김영국 譯     | 북한선교회   |
| 〈중공교회의 실상〉          | 싸일러스 장 著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
| 〈中國의 예수가정〉          | 보언리즈 著 편집부 譯       | 무실      |

\* 매호마다 2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성경이 전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또한 특수지역 선교에 도전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실제와 비전의 확인 및 필요한 훈련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가 주님께 서 중국을 돕도록 부르셨던 부르심을 확인하였을 때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던 중국에 1,000만권의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마침내는 한꺼번에 100만 권의 성경을 전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접근지역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된다. 또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접근이 금지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어떻게 도와야 할 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자는 지난번에 소개한, 일본 크리스찬신문사 기자가 마마캉과의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역시 김영국 장로가 번역한 <중공교회의 실상>이란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사일러스 장은 중국에서 1955년까지 목사로서 열심히 주님의 양떼들에게 꼴을 나누어 주다가 체포되어 반혁명분자라는 죄목으로 15년형을 언도받았고 23년간을 노동개조소에서 수용되었으며 굶주림과 박해와 고역의 극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1978년에 석방된 후 순회전도자로 5년간을 섬겼으며 한국에도 와서 간증집회를 통해

큰 감동을 준 분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제1부에서는 삼자애국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삼자회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제2부는 가정교회와 삼자애국교회와의 관계와 각 지방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잔잔히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각 지역 가정교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캠퍼스 사역자와 두 가정교회지도자의 간증 세 편이 실려 있다. 제3부는 전에는 삼자회 목사였다가 개방후인 1980년대초 홍콩신화사 통신의 부사장으로 부임된 이저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의 홍콩부임이 홍콩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장목사의 우려가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최근 한중간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중국을 다녀온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중국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피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중국교회상황에 대한 정보를 왜곡된 채로 전달함으로써 중국의 교회를 돕기는 커녕 자칫 그르치기 쉬운 상황에서 중국교회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최근에 전해지는 중국교회소식들은 중국선교를 낙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고 삼자회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해이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올해(1992년) 3월호 《天風》에 발표된 삼자회와 기협업의 업무보고에서도 그들의 시각이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줄 이 책의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



- |                    |                                |         |
|--------------------|--------------------------------|---------|
| <중국선교핸드북>          | 조나단 차오 編著 中國語文宣教會 編譯           | 두란노서원   |
| <中共宣教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중국복음선교회 編譯                     |         |
| <공자 모택동 그리스도>      | 폴 카프만 著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
| <대륙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 | 브라더 데이빗 著 김영국 譯                | 생명의 말씀사 |
| <허드슨 테일러>          | 로저 스티어 著 윤중석 譯                 | 두란노서원   |
| <내 사랑 황하를 흘러>      | 클레어 토레이 존슨 著                   | 국민일보사   |
| <작은 여인>            | 글래디스 아일워드 著 김병희 譯              | 전도출판사   |
|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 C.H.Kang & E.R.Nelson 著 이강국 編譯 | 미션하우스   |

##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 집단 체제의 의료기구가 해체되어 농촌 보건소가 곤경에 빠짐

정부당국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珠江 삼각주의 부유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동의 대부분 지역, 특히 빈곤지역의 농촌 보건소가 건물의 낙후, 빈약한 설비, 간부요원들의 동요, 업무 부진 등으로 곤경에 빠져있다고 한다.

건물의 낙후한 정도를 보면 광동의 농촌 보건소는 5,60년대에 지어져 대부분이 흙이나 나무, 벽돌 기와로 된 건물인데다 오래 동안 보수를 하지 않는 탓에 이미 여기저기 위험한 건물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특히 산간지역이나 빈곤지역의 보건소 건물들은 모두 낙후한 가운데 있다. 또 한가지 의료 설비가 낡고 빈약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이陝 위생청의 통계에 따르면 산간지역과 빈곤지역의 보건소 가운데 절반이상이 온도계, 혈압기, 주사기 등 이른바 「老三件」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5,60년대 농촌지역에 널리 세워진 보건소는 '赤脚醫生'(맨발의 의사: 농촌지역의 초급의료인)을 농촌 각지로 내보냈다. 이정책은 환자의 병을 신속히 치료해주고 농민에게 광범위한 의료 혜택을 주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80년도에 들어와서 농촌 보건소는 큰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당국의 정책이 확고하게 완비되지 못한데다 지방관리들이 농촌보다는 도시를 중시하며 사회적이익의 효과보다 경제적이익의 효과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간부요원들의 동요를 보면, 의료 및 간부요원들이 농촌에서 불안을 느껴 거의 전부가 도시로 되돌아 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로인해 농촌이 애초부터 안고 있던 의료인과 약의 부족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근년 들어 농촌에 생산 정부책임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집단경제체제가 해체되면서 의료협작제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보건소의 어려운 상황은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明報 91.12.19>

기도제목 - 경제개혁은 사실 국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것이나 뜻밖에도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특별히 유관기관이 빈곤지역의 의료시설을 완비하고 또 기타 민생방면의 상황을 개선해서 하루속히 농민들이 이 빈곤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자.

### 학술계 지식층을 더욱 뿌리뽑다

(AFP 15일 북경발 전문)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서방사상과 민주사상을 고취시키는 저작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수집하면서 개혁파와 지식층들을 뿌리뽑으려 기도하고 있다.

部급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중국대륙의 주요 대학과 「중국사회과학원」에 과거 5년간 발표한 모든 학위논문 가운데 정치문제를 다룬 것을 심사하도록 명령했다. 대륙의 교수, 연구원 및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 이지시를 따르는 체하면서 거스린다면 못 들은척 방치해 둔다면 이런 기관은 차후에 어떠한 졸업생도 받아들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이 공문에서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소극적인 저항에 부딪혔으며 결국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이소식통들은 말했다.

「교위」의 금번 조치의 목표는 1989년 민주운동중 북경에서 크게 활약한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북경외국어학원 및 중국정법학 등 4개 대학을 주요대상으로 한 것이다. <星島日報 92. 1.16>

기도제목 - "민심을 얻는 자는 흥하고 민심을 잃는 자는 망한다" 권력자들이 국가흥망의 이치를 깨달아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 덕점을 펼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자.

### 대륙의 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다.

「중국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11월에 이르는 사이 대륙법원이 결심한 건수는 모두 2백 4십 7만여건에 달했는데

11억 인구로 계산해 보면 420인당 한사람꼴로 이에 관련되어 있다. 물론 관리의 부정도 있고 적지 않은 민사분규도 있지만 살

인, 약탈, 강간, 인신유괴매매, 마약밀매 및 강력절도 등이 36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중공은 지난 몇 년동안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수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확실히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미꾸라지 잡으려다 송사리나 잡는 꼴이 되었다.

중공고위층의 친척 및 군세력가들이 작당하여 사리를 취하고 불법적일을 자행하면서 법망 밖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 법' 중공의 반경제 사범운동은 이제껏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기도제목 - 대륙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당국은 단지 문제의 발생만 억누를 뿐 문제의 근원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종 좋지않은 풍조를 바로 직시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대륙의 사회문제가 진정한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독직, 수뢰 및 공금유용 등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장인 임건신은 경제 범죄에 단호한 제재를 가하리라고 하면서 "부패 척결의 성패는 당과 국가의 생존흥망이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중공 당간부들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날로 확신이 흔들리고 기강이 해이해지며 오로지 돈만 아는 사회로 변할 때, 비록 앞으로 몇 몇 큰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한다 해도 여전히 부정부패와 탈법의 분위기를 바꾸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星島日報 92.1.8>

기도제목 -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문제의 발생만을 막기에 급급할 뿐, 문제의 근원에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문제를 바로 보고 사회의 여러 좋지 못한 기풍을 고치게 도우셔서 대륙의 사회문제가 진정한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종교의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력 방지 관련문서

중공 중앙교육부는 8월초, 종교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사태에 대처하여 대응조치하는 것에 관하여 공문을 발표하였다. 공문에서는 최근 수년간 종교가 학교교육에 침투하는 일이 끊임 없이 발생하였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종교가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달하였다.

1.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견지할 것
2. 각급 각종 학교의 학생에 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종교관과 과학사상의 교육을 강화할 것
3. 성경학교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행할 것
4.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것
5. 어떤 기관단체나 개인이 외국과 국제조직, 재중국 기관을 통해 직무를 대행하거나 자비종교유학생을 모집하는 등의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엄금할 것

6. 교육부문과 학교는 임의로 외부로부터의 현금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현금은 정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7. 대다수가 종교를 믿는 민족지역에서는 현지의 실제상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8. 종교가 교육을 방해하는 사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莫忘神州 1991.1.12>

기도제목 - 정부가 종교에 대한 통제를 더해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밖으로부터의 모든 방해가 하나님의 영광이 중국 땅에 드러나는 일을 막지 못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 인권조직이 중공의 종교자유 억압을 말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북경의 강경파 지도자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조직을 가일층 단속하고 있어 공산당이 다시 사회를 통제하려 한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인권조직의 통계 자료를 들어 이런 당국의 단속은 작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국은 중국 내륙과 동북지역에서 당국은 수백 명의 선교사와 신자들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3백 개의 가정교회를 폐쇄시켰으며, 1989년 11월이래 최소한 141명의 천주교 지도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인 「觀察」은 중공이 기독교에 대해, 특별히 로마카톨릭에 대해 혹독한 제재를 가해 지난 수년 동안 이미 수십명의 목사와 성직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또 중공당국이 금번의 진압조치와 반격을 「和平

演變」과 연결시키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중공은 「和平演變」이라는 이 한마디 경구를 이용해 서방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다고 단언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체포된 사람은 반혁명활동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게 되며, 10년징역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부는 국가통제를 받기를 거절하는 지하 기독교회가 장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뺏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星島日報 1992.1.21〉

기도제목 - 오랫동안 대륙의 신자들은 극심한 정치 압박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강박한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그들도 하루속히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중국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하며 참진리로 향하게 하도록 기도하자.

## 자비 유학생들이 귀국 후 실업자군이 되다.

관계기관의 소식통에 따르면 금년은 상해 자비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귀국하는 해가 될 것인데 8000여명이 취직자리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자비유학생들의 80% 이상이 실업하여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한다.

조사에 의하면 귀국한 자비유학생의 절대 다수가 구직희망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취업난이 그들 마음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귀국한 자비유학생이 취직난을 겪는 이유에 대해 다음 세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시장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년들어 상해에서는 노동력의 공급이 그 수요보다 커져서 취업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형, 중형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되면서 기업내의 기존의 남아돌아가는 직원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귀국유학생들의 취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자비유학생이 아직 공부를 끝내지 않고 취업하는 일은

시정부의 문서상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런 유학생들을 취업시키기도 곤란하고 노동자들의 감정을 상할까 염려스럽기도 한 것이다. 또한 외국에 가서 돈을 충분히 벌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철밥통을 찾아내어 사회주의의 노동복리후생을 누리려 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세째는 귀국유학생들 스스로 높은 보수를 주는 직업을 요구하여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대개 기피하고 있어 더욱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明報 92. 1. 16〉

기도제목 - 취업의 곤란은 사회경제에 이미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며 아울러 사회의 인생고를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의 생활을 보호하셔서 취업난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실업자들이 적합한 일을 찾아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자. ■

# 대 륙 선 교회 창립소식

선 · 교 · 동 · 정

##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중국어구사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모집부문: ① 의사, 약사, 간호사  
② 관리요원(전기, 영선)  
③ 행정요원(원무, 경리)

전형방법: 면접

연 락 처: 대륙선교회 사무실(549-6610)

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사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위원회: 본선교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대외협력 및 선교회의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
- ② 출판·문화위원회: 대륙에 신앙서적을 발간 보급하고, 현지에서의 출판사업을 추진하며 예능·체육을 통한 사역을 담당한다.
- ③ 의료위원회: 대륙병원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의료사역을 담당한다.
- ④ 교육위원회: 선교지 내에 직업 훈련기관의 설립·운영과 선교지에 대한 연구사역을 담당한다.
- ⑤ 사회복지위원회: 선교지내 장애자를 위한 재활원 등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고 낙도·오

## 1. 창립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사회주의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륙선교회가 지난 4월 21일 창립예배와 창립총회를 가짐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 선교회는 중국선교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태동되었고, 두차례 설교집을 발간하여 중국에 보내는 일이 계기가 되어 관심있는 성도들의 자연스런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두차례의 선교 보고회를 가졌고 특히 2월 보고회시에 하지경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여 캠퍼스사역을 담당케 하고 현지에서 대륙병원 건립사역을 계획하던 김진선 선교사와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고 정식 선교회 발족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선교회의 성격, 사역의 범위, 조직 및 인선 등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 신실한 동역자들과 협력교회들을 만나게 되어 신반포교회에서 13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뜻깊은 창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 2. 조직과 사역내용

조직은 크게 이사회와 실행위원회로 구분되고 이사회는 다시 상임이사회와 후원이사회로 나누어진다. 상임이사회는 선교회의 제반 사역을 지도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후원이사회는 본선교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지 등 소외지역의 복지지원사역을 담당한다.

- ⑥ 선교지원위원회: 선교사의 훈련·파송·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방한교포 전도사역 지원을 담당한다.

## 3. 선교사

- ① 본회선교사: 하지경, 주대수
- ② 협력선교사: 김진선

## 4. 기도제목

- ① 대륙병원 건립 및 헌신자 참여를 위하여 (의사 5명,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5명, 행정요원 5명, 약사)
- ② 현지에서의 출판 사역을 위하여

## 소식

### \*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창립예배

지난 4월17일 인천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은혜관에서 인천지역의 중국선교에 부담을 느끼는 동역자들을 모시고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지부는 인하대와 방송대 인천지역의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중국어성경반 회원들이 기초가 되었는데 인천지부의 지부장으로는 본회의 부총무인 김광석 전도사가, 전인간 사로는 본회 연구원인 주안도 간사가 수고 중입니다.

### \* 각 대학 중국어성경반 부활절 연합예배

지난 4월 21일에는 각대학 중국어 성경반 회원들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때 참석한 대학으로는 방송대(서울, 경기, 인천지역), 인하대, 서울대, 북한선교신학원 등이었습니다.

### \* 중국선교세미나

4월 27일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1연수실에서 김성태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중국선교의 현황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정기선교세미나는 6월 29일(월) 저녁 7시에 마중가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선교"라는 제목하에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4층 연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철야기도회

매월 셋째 화요일에 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철야기도회는 19일, 6월 철야기도회는 16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중국선교사역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합시다.

장소는 다메섹기도원에서 합니다.

### \* '92 중국선교대회

중국어문선교회는 6월 5일~6일까지 인천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중국선교대회교를 개최합니다. 참가희망자는 5월 29일까지 본선교회 사무실(전화: 594-8038)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토요일중국학 강좌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학 강좌가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게 될 이 강좌에 관심있는 분들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 중국어사역자 고급반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어 사역자를 위한 고급반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어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석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 \* 복음전도단 기도회

매월 셋째 목요일에 복음전도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기도회는 21일, 6월 기도회는 18일 저녁 7시에 '사랑의 집'에서 있습니다. 중국교포사역을 위한 이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대륙선교회 창립

새로운 북방선교단체인 '대륙선교회'가 지난 4월 21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중국·구소련·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이선교회는 앞으로 중국어문선교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진국 본선교회 대표간사가 이선교회의 이사로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별도 소개 내용 참조)

# '92 중국선교 대회

<주제: 중국선교와 인천>

서기 2000년의 중국과 인천의 모습을 그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한국 관문인 인천의 선교 전략적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모여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선교에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 6월 5일(금)                        | 6월 6일(토)                                    |       |
|-------|---------------------------------|---|-------|
|       |                                 |   | 오전    |
|       |                                 | 아침경건회(김성태 목사)                               | 6:30  |
|       |                                 | 아침식사  | 7:00  |
|       |                                 | 찬 양   | 8:30  |
|       |                                 | 강의 I: 조선족이민사 및 교회개척사<br>김형석 교수(충신대학 역사학과)   | 9:00  |
|       |                                 | TEA TIME                                    |       |
|       |                                 | 친교와 나눔                                      |       |
|       |                                 | 점심식사  | 12:30 |
|       |                                 | 강의 III: 외항선교와 중국선교<br>임재성 목사(외항선교회 인천총무)    | 1:30  |
|       |                                 | 강의 IV: 중국선교와 지역교회의 역할<br>주지호 목사(극동방송 중국어담당) | 3:00  |
|       |                                 | 폐 회 예 배<br>최병국 목사(인천 화목교회담임)                | 4:30  |
| 7:30  | 등록 및 저녁식사                       |   |       |
| 8:30  | 개 회 예 배<br>양치호 목사(인천성광교회 담임)    |   |       |
| 9:30  | 중국선교 영상보고회<br>김성태 교수(충신세계선교대학원) |   |       |
| 11:00 | 기도함주회                           |   |       |

(이 프로그램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참가안내>

- 기 간: 92년 6월 5일(금)~6월 6일(토)  
 장 소: 인천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1호선 주안역하차 - 41번 이용 인하대 후문 2정류장전 하차)  
 등 록: 5월 29일까지(등록비 1만원)  
 통장입금: 국민은행 008-01-0454-178, 조흥은행 325-1-062234  
 준 비 물: 세면도구, 필기도구(식사는 주최측에서 제공)  
 문의 및 연락처: (02) 594-8038 중국어문선교회  
 (032)872-0742 본선교회 인천지부

# 6월 중국선교세미나

강사: 마중가 교수(한림대)  
제목: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선교"  
일시: 6월 29일 저녁 7시  
장소: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관 4층연수실

## 편집 ◆ 집 ◆ 후 ◆ 기

「중국을 주제로」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추어 편집인들이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세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중국을 주제로」를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겠다고 저희를 찾아주신 편집 전문 디자이너 구본임 집사님이 이번 「중국을 주제로」의 편집을 맡아 주셨습니다.

본회 석귀희 출판부 간사가 졸업논문 휴가중이어서 편집에 큰 부담을 안고 있던 중에 때에 맞추어, 운문과 원고정리에 몸살을 얻으신 박혜영 집사님의 헌신을, 굶은 일을 도맡아 수고한 주성지 자매의 봉사를, 구본임 집사의 재능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귀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 . . . (俊)

## 「중국을 주제로」 헌금 안내

「중국을 주제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중국선교 전문지입니다. 중국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보다 많은 교회나 개인에게 이책이 보급되도록 제작비(권당 1,000원)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
|------------|-------------------|---------|
| 송금방법: 한일은행 | 081-167289-12-001 | 중국을 주제로 |
| 국민은행       | 084-01-0283-625   | 중국을 주제로 |
| 제일은행       | 378-10-063999     | 중국을 주제로 |